

제3장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남북간 교류와 협력은 반세기에 걸쳐 누적된 상호 불신을 해소하고, 민족동질성을 회복하는 지름길이다. 특히 경제교류협력은 상호 이익과 민족의 복리를 도모함으로써 남북 경제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기반을 구축해 나간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아울러 남북간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실질적인 남북관계 개선을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는 1990년 8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남북간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 왔다. 특히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에는 정경분리원칙을 바탕으로 두 차례의 경제협력 활성화조치를 취하는 등 남북간의 보다 많은 접촉과 대화 및 교류협력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남북간 교류와 협력의 확대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한 것을 계기로 남북간 교류협력은 새로운 전기를 맞아 인적·물적 교류가 획기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사업 등 각 분야에서 다각적인 협력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제1절 남북한 인적교류 증가

1. 남북한 왕래

가. 개 황

2001년 북한 방문은 신청 786건(9,148명), 승인 737건(8,805명), 성사 698건(8,551명)으로 1989년 방북이 허용된 이래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사람들이 북한을 다녀왔다. 또한, 경제·사회문화·이산가족·관광·대북지원 등 방북목적도 다양화 되었다.

< 2001년도 분야별 방북 현황 >

(단위: 명)

구 분	관 광 (실 무)	경 제	사 회 문 화	경수로 사 업	대 북 지 원	이산가족 (교류주선)	기 타	계
방북인원	494	668	701	3,514	803	156	2,215	8,551

한편, 북한주민의 남한방문 현황을 보면, 2001년 한해 동안 191명이 남한을 방문함으로써 2000년의 706명에 비해 78%가 감소되었다. 분야별로도 전년도에 비해 남북회담, 경제, 이산가족 등 제한된 범위에서 성사되었다.

< 2001년도 분야별 남한방문 현황 >

(단위:명)

구 분	남북 회담	경 제	체 육	이산가족	기 타	계
인 원	27	19	1	140	4	191

1989년 6월 12일 「남북교류협력에관한기본지침」 시행 이후 남북한 왕래는 주로 남한주민의 북한방문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2001년 12월 말까지 신청 3,264건(30,249명), 승인 3,111건(28,901명), 성사 2,907건(27,152명)이며, 북한 핵문제로 남북관계가 경색되었던 1993년과 1994년에는 각각 18명, 12명으로 현저히 감소하였다가 1995년부터는 대북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인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왔다.

특히, 1998년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에는 ‘정경분리원칙’을 바탕으로 민간차원의 남북교류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방북인원이 크게 증가하였다. 1998년 이후 2001년 12월말까지 북한을 방문한 남한 주민은 총 24,747명으로 1989년부터 1997년까지 9년간 방북인원 2,405명의 10배를 넘어서고 있어 남북간 인적교류 활성화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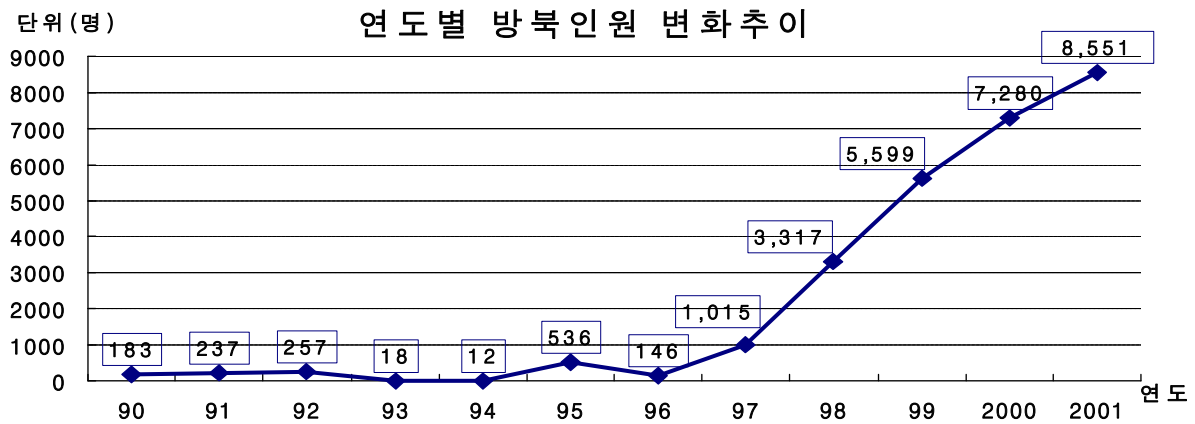
1998년 11월 18일 시작된 금강산 관광사업은 관광객 감소 등으로 현재 어려움에 처해 있으나 꾸준히 추진되고 있다. 2001년 12월말 현재 총 429,516명(외국인 1,422명, 영주권자 401명 포함)이 금강산을 관광했으며 2001년도 한해에는 57,879명이 다녀왔다.

< 연도별 남북왕래 현황 >

(1989.6.12-2001.12.31, 단위:건(명))

연도	구 분	신 청	승 인	성 사
1989	북한방문 남한방문	1(1) -	1(1) -	1(1) -
1990	북한방문 남한방문	7(199) 5(306)	6(187) 5(306)	3(183) 4(291)
1991	북한방문 남한방문	12(244) 3(175)	11(243) 3(175)	10(237) 3(175)
1992	북한방문 남한방문	17(303) 4(113)	8(257) 3(103)	8(257) 3(103)
1993	북한방문 남한방문	6(21) 2(6)	5(19) 2(6)	4(18) 2(6)
1994	북한방문 남한방문	12(78) -	7(54) -	1(12) -
1995	북한방문 남한방문	64(563) 1(7)	58(543) 1(7)	52(536) -
1996	북한방문 남한방문	50(249) -	35(170) -	28(146) -
1997	북한방문 남한방문	156(1,194) -	149(1,172) -	136(1,015) -
1998	북한방문 남한방문	402(3,980) -	387(3,716) -	340(3,317) -
1999	북한방문 남한방문	886(6,199) 1(62)	862(5,997) 1(62)	822(5,599) 1(62)
2000	북한방문 남한방문	865(8,070) 10(706)	845(7,737) 10(706)	804(7,280) 10(706)
2001	북한방문 남한방문	786(9,148) 5(191)	737(8,805) 5(191)	698(8,551) 5(191)
계	북한방문 남한방문	3,264(30,249) 31(1,564)	3,111(28,901) 30(1,556)	2,907(27,152) 28(1,534)

※ 금강산 관광객은 제외된 숫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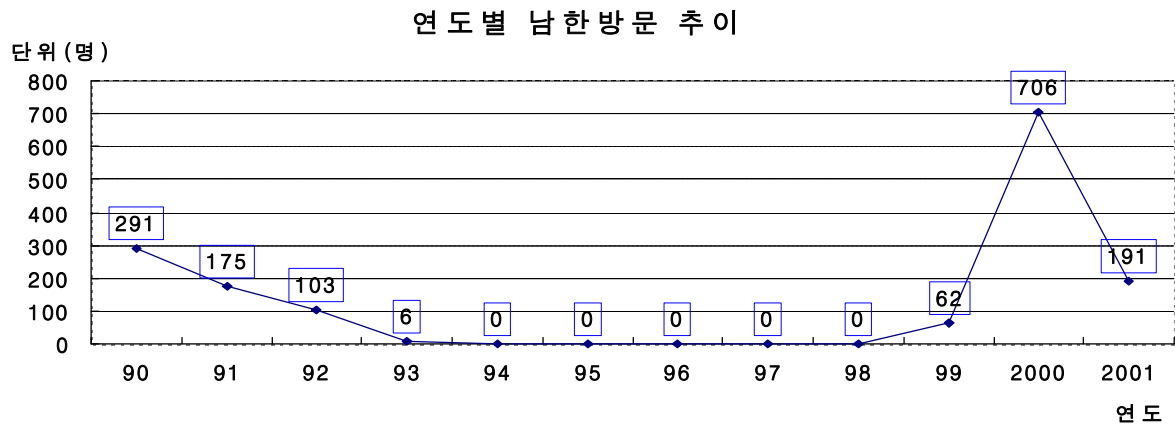


< 분야별 방북 현황 >

(1989.6.12-2001.12.31, 단위:명)

구 분	이산가족	경제	사회문화	관광사업	경수로	대북지원	기 타 (남북회담등)	계
인원(명)	511	2,044	2,197	8,457	8,203	2,601	3,139	27,152

한편, 1990년 이후 2001년까지 남한을 방문한 북한주민은 총 1,534명이다. 연도별로 보면, 1990년에는 291명이 방문하였으나 1994년부터 1998년까지는 남한방문이 없었다. 1999년에는 62명이 방문하였고 2000년에는 706명으로 급격히 증가되었으나 2001년에는 이산가족 상봉의 부진 등으로 인해 다시 191명으로 감소하였다.



< 분야별 남한방문 현황 >

(1989.6.12-2001.12.31, 단위:명)

구 분	남북 회담	체 육	문화 예술	경 제	학 술	이산 가족	기 타	계
인원(명)	447	211	369	53	15	427	12	1,534

나. 남한주민 방북

(1) 경제분야 관련 방북

1989년 6월 12일 「남북교류협력에관한기본지침」 시행 이후 2001년 12월말까지 경제분야와 관련한 남한주민의 북한방문은 신청 646건(2,675명), 승인 576건(2,387명), 성사 512건(2,044명)이었다. 2001년에는 신청 169건(771명), 승인 150건(685명), 성사 142건(668명)으로 이는 2000년 방북 인원 543명에 비하여 12.3% 증가한 것이다.

1992년 10월 남포 경공업단지 투자실무조사단의 방북 이후 한동안 중단되었던 기업인의 방북은 1994년 11월 8일 「남북경협활성화조치」 이후 재개되었으나, 북한의 무장잠수함 침투사건(1996. 9) 등 남북관계의 상황변화에 따라 일시적으로 위축되기도 하였다.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정경분리원칙'에 입각한 남북경협을 추진과 1998년 「제2차 남북경협활성화조치」로 대기업 총수의 방북이 허용되면서 같은 해 10월 현대의 정주영 회장이 방북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금강산 관광사업 등을 협의하였고, 1999년에는 금강산 관광사업과 서해안공단 조성사업에 관해 북한의 고위층과 직접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2000년에는 경제협력에 관한 제도적 장치 관련 당국간 협의를 위하여 11월 남북경협 실무접촉에 22명, 12월 남북경협추진위원회에 35명의 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하여 당국간 경제협력 문제를 협의하였다.

이와 함께 협력사업의 추진과 협의를 위한 우리 경제인들의 북한방문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2001년도에도 경제분야에서는 삼성전자의 임가공사업 및 소프트웨어 공동개발 협의, 하나비즈닷컴·엔트랙·훈넷 등의 정보기술(IT) 분야 협의, 한국담배인삼공사의 담배임가공사업 추진, 평화자동차의 자동차 수리개조 사업 추진, 녹십자의 의약품 개발사업 및 물자교역 등 남북경협과 관련한 방북이 꾸준히 이루어졌다.

(2) 사회문화분야 관련 방북

1989년 6월 12일 「남북교류협력에관한기본지침」 시행 이후 2001년 12월말까지 사회문화분야와 관련한 남한주민의 북한방문은 신청 360건(2,888명), 승인 325건(2,693명), 성사 264건(2,197명)이었다. 2001년에는 신청 103건(841명), 승인 94건(775명), 성사 84건(701명)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2000년 방북인원 674명에 비하여 4% 증가한 것이다.

사회문화분야에서의 북한방문은 남북 국악인 서울·평양 공연(1990. 12), 남북통일축구대회(1990. 10) 및 세계청소년축구대회 남북 단일

팀 평가전(1991. 6) 등 남북공동행사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1992년부터는 종교인 등의 개별적인 북한방문이 성사되기도 하였으나, 북한이 체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사회문화분야 교류를 기피함에 따라 1996년까지는 남한주민의 북한방문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1997년 중앙일보의 북한문화유적 답사·조사를 위해 북한방문이 재개되고 1998년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에는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우리 사회문화계의 대북 교류 열기가 고조되면서 지난 수년간의 실적을 능가할 정도로 사회문화교류를 위한 방북이 증가하였다. 특히, 제3국에서의 접촉위주로 이루어지던 사회문화교류가 평양, 서울 등 한반도 내에서 직접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학술·체육분야의 방북은 1989년 이후 2001년 12월말 현재까지 신청 164건(1,557명), 승인 158건(1,522명), 성사 131건(1,226명)이며, 2001년에는 신청 59건(443명), 승인 58건(431명), 성사 50건(386명)이 이루어졌다.

2001년도 주요 방북사례를 보면, 강만길 「민족21」 발행인 등 20명이 역사자료전시회 참관을 위해 방북하였고, 박선희 동북아교육문화협력재단 이사장 등 3명이 평양정보과학기술대학 건립 협의를 위해 북한을 다녀왔다.

또한 2001년 3월 김한길 문화관광부장관 등 10명이 문화체육 분야 교류협력을 협의하기 위해 방북하였고, 우인방커뮤니케이션은 통일염원 금강산자동차질주경주대회를 위해서 방북하였으며, 현대는 평양실내종합체육관 건설사업을 위하여 관련인사와 건설근로자들이 방북하는 등 학술·체육분야에서 북한 방문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언론·출판분야 방북은 1989년 이후 2001년 12월말까지 신청 51건(343명), 승인 44건(315명), 성사 38건(288명)이었다. 2001년에는 신청 13건(90명), 승인 12건(87명), 성사 11건(82명)이 이루어졌다. 언론·출판분야에 있어서 방북은 취재·보도를 주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과 정보의 대량전달이라는 매체의 특성상 다른 분야에 비해 추진이 어려

운 분야이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 이후 언론사 사장단 방북이 성사(2000. 8)되면서 향후 남북언론교류 전망을 밝게 했다. 언론사 사장단은 방북시에는 「남북언론기관간 합의문」을 채택하였으며, 북한 언론기관대표의 서울 방문 추진도 합의하였으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01년도 주요 방북사례로는 MBC가 3월 방북하여 북한풍물, 주민생활 취재내용을 생방송으로 보도한 바 있으며, KBS는 5월 북한의 자연·환경·역사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해 방북하여 그 내용을 보도하였다. 또한 PD연합회의 드라마제작 협의를 위한 방북도 성사되었다.

종교분야에서의 방북은 1989년 이후 2001년 12월말까지 신청 75건(388명), 승인 63건(304명), 성사 47건(232명)이었다. 2001년에는 신청 18건(157명), 승인 12건(110명), 성사 11건(86명)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2000년 방북인원 47명에 비해 83% 증가한 것으로 개신교, 불교, 천주교 등 각 교단에서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데 따른 것이다.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방북은 1989년 이후 2001년 12월말까지 신청 42건(484명), 승인 36건(448명), 성사 27건(369명)이었다. 2001년에는 신청 11건(138명), 승인 10건(134명), 성사 10건(134명)이 이루어져 전년도에 비하여 5배 이상의 증가를 기록하였으며, 2001년도 주요 방북사례로는 춘향문화선양회의 춘향전 방북공연 및 메종드 이영희 등의 민족 옷 전시회 등을 들 수 있다.

(3) 대북경수로 건설사업 관련 방북

1995년에 북한 함경남도 신포시 금호지구 부지조사단과 의정서 협상을 위한 대표단이 방북한 이래 경수로건설사업의 진전에 따라 관련 인원의 북한방문이 꾸준히 계속되고 있다. 1997년 8월에 부지정리 등을 위한 초기 현장공사가 착공되고 1998년에는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공사관계자 등의 북한방문이 크게 증가하였다. 1999년 한해 동안 911명의 남한주민이 경수로사업 추진을 위해 방북하였으며, 한반도에

너지개발기구(KEDO) 금호사무소 인원, 한전 및 합동시공단의 건설인력 등 공사관계자들이 신포부지에 장기체류하고 있다.

2001년도 대북경수로건설사업 관련 방북은 신청 236건(3,586명), 승인 235건(3,581명), 성사 229건(3,514명)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1.6배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증가는 1999년 12월 15일 본공사 계약(TKC)이 체결됨에 따라 2000년부터는 경수로건설사업 관계자들의 북한방문이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다. 북한주민의 남한방문

1989년 이후 2001년 12월말까지 북한주민의 남한방문은 신청 31건(1,566명), 승인 31건(1,566명), 성사 28건(1,534명)이며 2001년에는 5건(191명)이 신청되어 모두 승인·성사되었다.

지금까지 성사된 북한주민의 주요 남한 방문사례로는 남북고위급회담(1990-1992)을 위한 북한대표단 서울방문, 남북통일축구대회(1990) 및 제6회 세계청소년축구대회 남북단일팀 평가전(1991) 서울경기 참석, 산업시찰을 위한 김달현 정무원 부총리 일행의 남한방문(1992) 등이 있다. 그러나 1993년 유엔개발계획(UNDP)이 서울에서 개최한 두만강 개발계획 관련 통신분야 전문가회의(1.27-1.30)와 자원·산업·환경분야 전문가회의(11.8-10)에 각 3명씩 참석한 이후로 1998년까지 북한주민들의 남한방문 실적은 없었다. 그러나, 1999년에 들어와 「제2차 통일농구경기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북측농구단 및 관계자 62명이 서울을 방문(12.22-25)함으로써 북한주민의 남한방문은 재개되었다.

2000년에는 북한주민의 남한방문이 급격히 증가하여 1989년 이후 이루어진 전체 남한방문자 수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인원이 남한을 방문하였다. 이와 같은 현상은 사회문화교류의 증가와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하여 각종 회담의 회수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주요 남한방문사례로는 평양학생소년예술단 공연 (2000. 5.24-27)

102명, 평양교예단 공연(2000. 5.27-6.11) 102명, 제1차 남북장관급회담(2000. 7.29-31) 25명, 8.15 이산가족 교환방문(2000. 8.15-8.18) 151명, 남북교향악단 합동연주회(2000. 8.18-24) 132명, 김용순 특사 방문(2000. 9.11-14) 8명, 제1차 남북경제협력실무접촉(2000. 9.24-26) 15명, 제1차 남북국방장관회담(2000. 9.24-26) 13명, 제3차 남북장관급회담(2000. 9.27-30) 22명, 제2차 이산가족 교환방문(2000.11.30-12. 2) 136명이 남한을 방문하였다.

한편, 2001년에는 북한주민의 남한방문이 다시 감소되긴 하였으나 1999년에 비해서는 3배 이상 증가한 상태로 꾸준히 지속되는 추세를 보였다.

2001년도의 주요 남한방문사례로는 제3차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2001. 2.26-28) 140명, 정주영 전 현대그룹 명예회장 조문단(2001. 3.23) 4명,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2001. 9.15-18) 27명, KEDO 원전 고위정책자과정 참여(2001. 12.17-29) 19명이 남한을 방문하였다.

2. 북한주민접촉

가. 개 황

남한주민의 북한주민접촉은 2001년도에는 신청 1,160건(2,317명), 승인 1,136건(2,268명), 성사 1,209건(1,877명)이 이루어졌다. 지금까지 남한주민의 북한주민접촉은 1989년 이후 2001년 12월말까지 신청 23,671건(41,711명), 승인 23,235건(40,088명), 성사 7,250건(15,312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2001년도 북한주민접촉 실적은 2000년도에 비해 감소되었는데, 이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당국간 협력을 통한 이산가족 문제해결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제3국을 통한 개별접촉 등이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2001년도 분야별 북한주민접촉은 경제분야 250건(393명), 관광분야 2건(19명), 사회문화분야 94건(346명), 대북지원 28건(77명), 이산가족 830건(1,012명), 기타 5건(30명) 등이다.

< 2001년도 분야별 북한주민접촉 현황 >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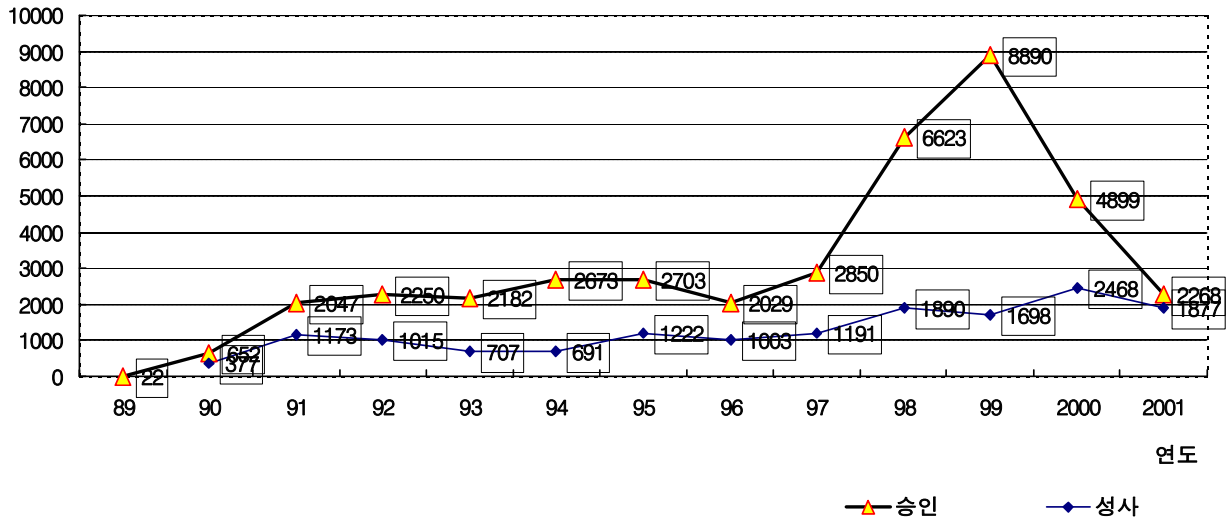
구분	이산가족	경제	사회문화	관광사업	대북지원	기타	계
인원	1,012	422	317	19	77	30	1,877

북한주민접촉은 북한 핵문제 발생 등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된 1994년에는 237건(691명)으로 일시 감소하기도 하였으나 그 이후 이산가족 및 경제분야를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1998년부터는 금강산 관광사업 추진 등 경제분야에서의 북한주민접촉 신청이 급격히 증가되었으며, 그 이후 사회문화 분야 및 이산가족과 관련하여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주민접촉은 주로 이산가족들의 재북 가족과의 서신교환, 기업인들의 교역·투자상담, 학자·종교인들의 제3국 개최 공동행사 참석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연도별 주민접촉 신청,승인,성사 추이

단위(명)



< 연도별 북한주민접촉 현황 >

단위:건(명)

연 도	신 청	승 인	성 사
1989	36(70)	21(22)	-
1990	235(687)	206(652)	62(377)
1991	753(2,195)	685(2,047)	266(1,173)
1992	801(2,420)	744(2,250)	238(1,015)
1993	1,172(2,220)	1,148(2,182)	313(707)
1994	1,338(2,864)	1,261(2,673)	237(691)
1995	1,011(2,769)	1,007(2,703)	494(1,222)
1996	729(2,338)	692(2,029)	465(1,003)
1997	1,387(2,969)	1,340(2,850)	516(1,191)
1998	4,628(6,714)	4,567(6,623)	856(1,890)
1999	7,590(9,198)	7,616(8,890)	884(1,698)
2000	2,831(4,950)	2,812(4,899)	1,710(2,468)
2001	1,160(2,317)	1,136(2,268)	1,209(1,877)
계	23,671(41,711)	23,235(40,088)	7,250(15,312)

나. 관광사업 관련 접촉

관광분야에서의 북한주민접촉은 1989년 이후 2001년 12월말까지 신청 181건(599명), 승인 173건(571명), 성사 51건(171명)으로 집계되었다. 2001년에는 신청 8건(47명), 승인 8건(47명), 성사 2건(19명)이 이루어졌다. 금강산 관광사업과 관련해서는 1998년부터 중국 베이징 등지에서 현대와 아태 관계자간의 접촉이 이루어졌다.

관광분야에서는 한국관광공사를 비롯하여 대부분 국내여행사 등이 승인을 받고 접촉을 시도하였으며, 주로 북한의 문화유적 및 관광지 개발과 남북관광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하고자 하였으나 북측과의 실질적인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 경제분야 접촉

경제분야의 북한주민접촉은 1989년 이후 2001년 12월말까지 신청 4,393건(10,396명), 승인 4,293건(10,141명), 성사 2,295건(3,834명)에 이르고 있다. 2001년에는 신청 433건(810명), 승인 424건(799명), 성사 250건(393명)으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었다.

2001년도 물자교역 및 남북경협 협의목적의 북한주민접촉은 정보기술(IT) 업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베이징, 홍콩 등 제3국에서 이루어져 왔으며, 이러한 접촉이 대북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업인의 방북으로 이어져 남북경협이 이루어지고 있다.

라. 사회문화분야 접촉

사회문화분야의 북한주민접촉은 학술, 문화예술, 체육, 종교, 언론·출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히 계속되어 왔다.

학술분야의 북한주민접촉은 1989년 이후 2001년 12월말까지 신청 623건(4,115명), 승인 575건(3,465명), 성사 210건(2,138명)이 이루어졌다. 2001년도에는 신청 67건(192명), 승인 67건(192명), 성사 30건(102명)으로 전년도보다 접촉신청 인원이 36% 감소하였으나, 성사 인원은 전년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남북간의 학술교류와 관련한 북한주민접촉은 주로 중국지역 동포학자와 단체들의 대북 교류경험을 활용하여 공동학술행사를 개최하거나, 국제학술회의에 남북이 동시에 초청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2001년 주요 접촉사례로는 하버드대 주관 학술회의(1.25~28, 호놀룰루), 우리말컴퓨터처리 국제학술회의(2.22~24, 옌지), 유럽한국학회 제20차 학술대회(4.4~8, 영국런던대), 만주사변 7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8.7~8, 하얼빈), 21세기 민족문화 자료의 발굴과 연구 제1차 학술회의(9.21~22, 옌지), 남북한언어동질성회복을 위한 제1차 국제학술회의(12.14~14, 베이징), 제5회 한·조·일 자연체험캠프 참가(12.23~1.1, 일본 돗토리) 등이 있다.

문화·예술분야의 북한주민접촉은 1989년 이후 2001년 12월말까지의 신청 457건(1,851명), 승인 403건(1,744명), 성사 146건(960명)으로 집계되었다. 2001년에는 신청 57건(157명), 승인 53건(147명), 성사 12건(58명)으로 전년에 비해 63% 감소하였다..

2001년도의 주요 접촉사례로는 남북경기도 문화교류 및 도자기 엑스포에 북한초청(1.18), 남북공동사진전 개최 협의(3.31), 만화교류협의(7.30), 남북미술교류협의(11.17), 학술대회 및 한일고전예능제 조총련초청협의(12.7) 등이 있다.

체육분야의 북한주민접촉은 1989년 이후 2001년 12월말까지 신청 248건(1,151명), 승인 238건(1,111명), 성사 84건(612명)이다. 2001년에는 신청 26건(84명), 승인 24건(80명), 성사 11건(27명)의 북한주민접촉이 이루어져 전년도의 40% 수준을 나타내었다.

2001년 주요 접촉사례로는 제2차 통일염원 국제텔리 협의(2.8), 남북 태권도시범단 교환문제 협의(3.3), 제46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남북단일팀 참가문제 협의(3.22), 제18회 부산 아·태 장애인 경기대회에 북한측 초청(9.13), 2002년 부산아시아경기대회 북한참여 추진(11.21) 등이 있다.

종교분야의 북한주민접촉은 1989년 이후 2001년 12월말까지 신청 390건(1,889명), 승인 334건(1,738명), 성사 144건(1,079명)으로 나타났다. 2001년에는 신청 16건(101명), 승인 16건(100명), 성사 9건(86명)이 이루어져 2000년에 비해 접촉 성사건수는 다소 감소하였다.

2001년도 주요 접촉사례로는 조선그리스도연맹과의 종교교류 협의(3.2), 부활절 연합예배 개최 협의(3.12), 금강산 평화모임 협의(3.26), 남북불교교류 협의(4.23), 개천절 공동행사 협의(4.30), 남북 기독교 교류협의(6.25) 등을 들 수 있다.

언론·출판분야의 북한주민접촉은 1989년 이후 2001년 12월말까지 신청 376건(1,040명), 승인 334건(940명), 성사 122건(422명)이 이루어졌다. 2001년에는 신청 38건(67명), 승인 38건(69명), 성사 13건(29명)이 이루어졌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88% 감소한 것이다.

2001년 주요 접촉사례로는 북한도서전시회 참관(2.14), 북한 스포츠 뉴스 및 자료사용 협의(2.21), 남북통신사간 교류 협의(3.7), 북한 고려대장경 국내출간 협의(4.4), 동영상 콘텐츠협력 협의(4.7), 남북방송교류 협의(5.8), 조총련 교육문제 취재(10.24), 방북취재 및 언론교류 협의(11.23) 등을 들 수 있다.

과학·환경분야에서의 북한주민접촉은 1989년 이후 2001년 12월말까지 신청 246건(908명), 승인 334건(885명), 성사 69건(326명)이 이루어졌다. 2001년에는 신청 15건(33명), 승인 14건(28명), 성사 12건(15명)이 이루어져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었다.

2001년 주요 접촉사례로는 대전광역시에서 제2회 WTA 대전테크노
마트 초청(2001.7), 한국산업인력공단 제36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북한
관계자 초청(2001.7) 등을 들 수 있다.

제2절 남북교역

1. 남북간 물자교역

가. 교역규모

남북간의 물자교역은 1988년 「7.7선언」과 그 후속조치인 「대북한 경제개방조치」에 따라 시작되었다. 남북교역이 시작된 초기에는 2천만달러에도 미치지 못하였던 교역규모가 1990년 8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법률」의 제정 등 관련 법제가 마련되면서 교역량이 1억달러를 넘어서기 시작하였다.

이후 북한의 1993년 NPT탈퇴선언 등 핵문제로 인해 남북관계가 일시 경색되기도 하였으나 1994년의 「남북경협활성화조치」 등에 힘입어 1995년부터는 남북교역규모가 2억달러수준을 넘어서기 시작하였다. 1997년에는 북한산 철강금속류의 반입 증가, 위탁가공 교역의 확대, 경수로건설사업의 시작에 따른 공사물자의 반출 증가 등으로 남북교역 규모가 3억달러를 돌파하였다.

1998년에는 외환위기로 인한 대내외 경제여건의 악화로 남북교역도 위축되어 교역량이 전년보다 28% 감소한 2억 2,194만달러에 그치기도 하였다. 1999년에는 국내경기회복에 따라 위탁가공교역이 확대되고 금강산관광 사업 및 경수로 건설사업 등 경협사업이 진전됨에 따라 교역량이 다시 3억달러를 넘어섰다. 2000년에는 농수산물의 반입증가, 전기·전자제품 등 위탁가공교역의 확대, 대북 비료지원, 경수로 본공사 착수 등에 따라 남북교역이 사상 처음으로 4억달러를 넘어서게 되었다.

2001년에는 국내경기 침체, 남북간 운송여건 등으로 2000년에 비해서 교역량이 소폭 감소하였으나 남북교역규모가 4억 296만달러로 4억 달러선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 남북교역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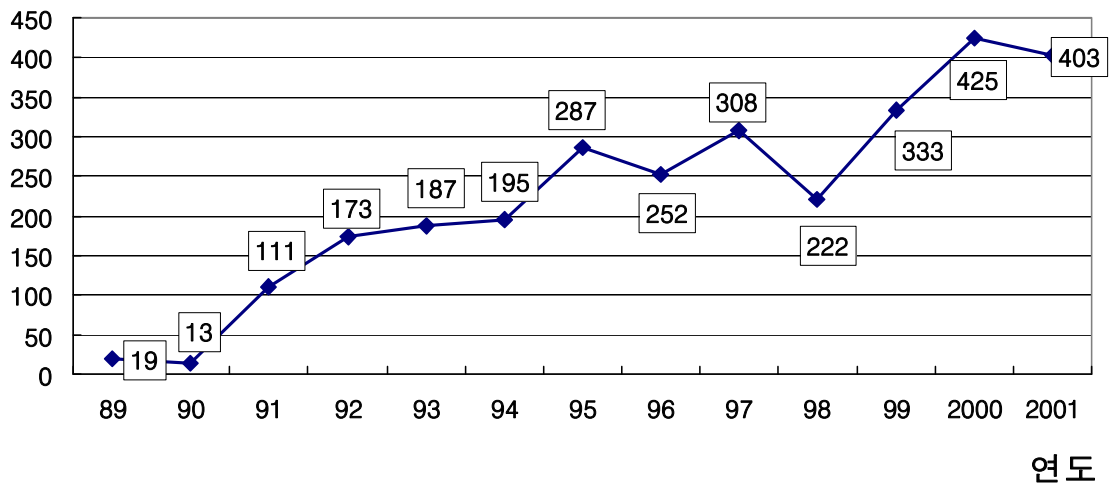
(단위 : 천달러)

연도	반 입			반 출			합 계		
	건수	품목수	금 액	건수	품목수	금 액	건수	품목수	금 액
1989	66	25	18,655	1	1	69	67	26	18,724
1990	79	23	12,278	4	3	1,188	83	26	13,466
1991	300	44	105,719	23	17	5,547	323	61	111,266
1992	510	76	162,863	62	24	10,563	572	100	173,426
1993	601	67	178,167	97	38	8,425	698	105	186,592
1994	708	73	176,298	267	92	18,249	975	165	194,547
1995	976	105	222,855	1,668	174	64,436	2,644	279	287,291
1996	1,475	122	182,400	1,908	171	69,639	3,383	293	252,039
1997	1,806	140	193,069	2,185	274	115,270	3,991	414	308,339
1998	1,963	136	92,264	2,847	380	129,679	4,910	486	221,943
1999	3,089	172	121,604	3,421	398	211,832	6,510	525	333,437
2000	3,952	203	152,373	3,442	505	272,775	7,394	647	425,148
2001	4,720	197	176,170	3,034	468	226,787	7,754	603	402,957
계	20,685		1,794,717	21,311		1,134,458	41,996		2,929,174

* 1995년 교역실적에는 대북 쌀지원 237,213천달러 반출을 제외한 것임.

연도별 남북교역액 변동추이

단위(백만불)



나. 남북간 교역수지

전체 교역 규모면에서 볼 때 1989년부터 1997년까지는 남북교역이 남한의 반입 위주로 이루어졌으나 1998년부터는 남한의 반출우위의 구조로 바뀌었다. 이는 1995년부터 KEDO중유 및 인도지원물자의 반출이 늘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1997년에는 경수로건설사업, 1998년에는 금강산 관광사업, 1999년에는 비료지원 등이 추진되면서 이른바 비거래성 교역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교역규모가 1억달러를 넘어선 1991년부터 2001년까지 대금결제가 수반되지 않는 인도지원, 경수로, 금강산관광사업용 물자를 제외한 실질교역수지면에서 연평균 1억 1,561만달러의 교역적자를 보이고 있으나, 최근 적자 폭은 크게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역수지 추이는 북한경제의 반입 여력이 확보되고, 청산결제 등을 통해 상호 균형적인 남북교역이 활성화될 때까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연도별 남북한간 교역수지 >

(단위 : 천달러)

연도	반 입	반 출	계	교역수지	비 고
1989	18,655	69	18,724	△ 18,586	-
1990	12,278	1,188	13,466	△ 11,090	-
1991	105,719	5,547	111,266	△ 100,172	1991~2001연평균 △ 57,325 (△ 115,612)
1992	162,863	10,563	173,426	△ 152,300	
1993	178,167	8,425	186,592	△ 169,742	
1994	176,298	18,249	194,547	△ 158,049	
1995	222,855	64,436	287,291	△ 158,419 (△ 169,414)	
1996	182,400	69,639	252,039	△ 112,761 (△ 127,016)	
1997	193,069	115,270	308,339	△ 77,799 (△ 133,049)	
1998	92,264	129,679	221,943	37,415 (△ 40,629)	
1999.	121,604	211,832	333,437	90,228 (△ 53,929)	
2000	152,373	272,775	425,148	120,402 (△ 61,315)	
2001	176,170	226,787	402,957	50,617 (△ 110,639)	
합계	1,794,715	1,134,459	2,929,175	△ 660,256 (△ 1,301,409)	

* ()내는 경수로 물자, 대북 무상지원, KEDO 중유, 협력사업용 물자 등 비거래성 반출입 금액을 제외한 실질교역수지임.

다. 교역형태 · 품목

남북교역은 초기에는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북한의 태도로 인해 대부분 해외중개상을 통해 간접교역 형태로 진행되어 왔으나 1990년대 중반부터 한약재, 농산물, 위탁가공교역의 일부 품목을 중심으로 남북한 교역당사자간에 직접 상담 및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 1998년부터는 북한의 「민족경제협력연합회」가 대남경협사업을 담당하고 베이징·단둥대표부를 설치하면서 직접교역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통행, 통신제약에 따른 거래위험을 줄이기 위해 중개교역을 하는 경우가 많다.

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은 초기에는 금괴 등 광산물과 아연괴, 선철 등 철강·금속제품이 주류를 이루었다.

1991년부터 1997년까지 연평균 34%의 반입 비중을 보이던 광산물은 1998년을 기점으로 그 비중이 큰 폭으로 낮아졌으며 초기부터 연평균 40%이상의 반입비중을 보이던 철강·금속제품은 1999년부터 10%대로 하락하였다.

1992년부터 시작된 위탁가공교역이 점차 확대되면서 섬유제품의 비중이 1996년부터 20%이상으로 높아지기 시작하여 1998년에는 4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농림수산품은 초기부터 반입비중이 높은 품목으로서 1999년 39.4%, 2000년 47.2%, 2001년에는 51.0%로 각각의 연도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농림수산품과 섬유류의 반입비중이 1999년 76.8% 2000년 82.4%, 2001년에는 82.2%로써 높은 편중도를 보이고 있다. 2001년도의 주요 반입품목은 농림수산품 51.0%, 섬유류 31.2%, 철강·금속제품 5.6%, 전자 및 전기 5.0% 등이다.

< 연도별 반입품목 현황 >

(단위 : 천달러)

연도	농림수산물	광산물	화학공업생산물	섬유류	철강금속제품	기계류 및 운반용기계	전자및전기	기타제품	합계
1989	2,352 (12.6)	1,094 (5.9)	104 (0.6)	5 (0.0)	15,072 (80.0)	24 (0.1)	0 (0.0)	4 (0.0)	18,656 (100.0)
1990	5,572 (45.4)	58 (0.5)	1,730 (14.1)	0 (0.0)	4,529 (36.9)	14 (0.1)	0 (0.0)	376 (3.1)	12,278 (100.0)
1991	10,818 (10.2)	21,520 (20.4)	5,732 (5.4)	0 (0.0)	67,303 (63.7)	17 (0.0)	0 (0.0)	329 (0.3)	105,719 (100.0)
1992	16,906 (10.4)	43,866 (26.9)	13,064 (8.0)	3,385 (2.1)	83,514 (51.3)	797 (0.5)	4 (0.0)	1,329 (0.8)	162,864 (100.0)
1993	12,015 (6.7)	87,277 (49.0)	1,528 (0.9)	8,477 (4.8)	64,647 (36.3)	0 (0.0)	80 (0.0)	4,144 (2.3)	178,167 (100.0)
1994	15,250 (8.7)	75,468 (42.8)	1,246 (0.7)	18,515 (10.5)	63,069 (35.8)	0 (0.0)	0 (0.0)	2,750 (1.6)	176,298 (100.0)
1995	22,319 (10.0)	86,562 (38.8)	347 (0.2)	28,833 (12.9)	81,629 (36.6)	9 (0.0)	6 (0.0)	3,150 (1.4)	222,855 (100.0)
1996	23,455 (12.9)	64,807 (35.5)	555 (0.3)	44,460 (24.4)	44,260 (24.3)	91 (0.0)	1,697 (0.9)	3,076 (1.7)	182,400 (100.0)
1997	27,326 (14.2)	48,313 (25.0)	15,677 (8.1)	47,091 (24.4)	47,946 (24.8)	999 (0.5)	3,140 (1.6)	2,578 (1.3)	193,069 (100.0)
1998	21,798 (23.6)	765 (0.8)	2,427 (2.6)	38,794 (42.0)	20,254 (22.0)	698 (0.8)	3,518 (3.8)	4,010 (4.3)	92,264 (100.0)
1999	47,886 (39.4)	2,462 (2.0)	2,494 (2.1)	45,513 (37.4)	16,120 (13.3)	1,557 (0.3)	2,838 (2.3)	2,707 (2.2)	121,604 (100.0)
2000	71,934 (47.2)	517 (0.3)	1,538 (1.0)	53,693 (35.2)	11,747 (7.7)	1,739 (1.1)	8,254 (5.4)	2,940 (1.9)	152,373 (100.0)
2001	89,811 (51.0)	3,554 (2.0)	1,405 (0.8)	54,930 (31.2)	9,887 (5.6)	2,281 (1.3)	8,748 (5.0)	5,554 (3.2)	176,170 (100.0)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은 초기에는 농업용 비닐자재 등 화학제품이 큰 비중을 차지했으나, 1993년부터 위탁가공용 원부자재의 반출로 섬유류가 늘어나 지금까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1995년부터 KEDO중유, 식량지원 등에 따라 비금속광물제품과 1차산품의 반출증가에 따라 섬유류의 비중은 1997년부터 다소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반면, 기계류·운반용 기계가 1997년부터 10%이상, 화학공업 제품도 1999년 20.2%, 2000년 35.0%, 2001년에는 28.2%로 반출비중이 높아졌다. 이는 경수로사업 및 금강산 관광사업용 물자의 반출과 비료 지원에 기인된 것이다. 2001년의 주요 반출품목은 화학공업제품

28.2%, 섬유류 23.1%, 1차산품 14.6%, 기계류·운반용 기계 12.0%, 철강·금속제품, 전기·전자제품 6.4% 등이다.

< 연도별 반출품목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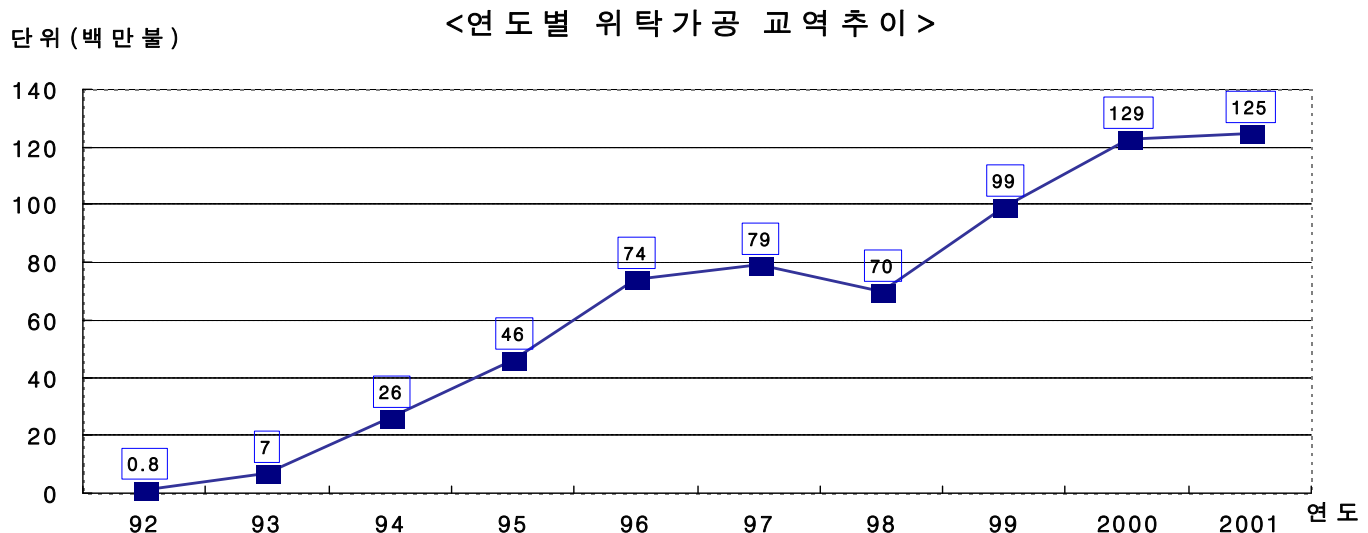
(단위:천달러)

연도	일차산품	화학공업 제품	플라스틱 고무	비금속 광물제품	섬유류	생활 용품	철강금 속제품	전자 및 전기	기계류 및 운반용기계	잡제품	합계
1989	0 (0.0)	0 (0.0)	0 (0.0)	0 (0.0)	69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69 (100.0)
1990	10 (0.8)	0 (0.0)	0 (0.0)	0 (0.0)	83 (7.0)	0 (0.0)	0 (0.0)	0 (0.0)	1,095 (92.2)	0 (0.0)	1,188 (100.0)
1991	1,607 (29.0)	1,819 (32.8)	216 (3.9)	1,392 (25.1)	66 (1.2)	0 (0.0)	0 (0.0)	447 (8.1)	0 (0.0)	0 (0.0)	5,547 (100.0)
1992	64 (0.6)	5,214 (49.4)	2,369 (22.4)	135 (1.3)	717 (6.8)	85 (0.8)	1,957 (18.5)	0 (0.0)	22 (0.2)	0 (0.0)	10,563 (100.0)
1993	69 (0.8)	920 (10.9)	732 (8.7)	1 (0.0)	5,581 (66.2)	20 (0.2)	260 (3.1)	463 (5.5)	121 (1.4)	260 (3.1)	8,425 (100.0)
1994	3,317 (18.2)	1,499 (8.2)	152 (0.8)	79 (0.4)	12,077 (66.2)	255 (1.4)	274 (1.5)	160 (0.9)	56 (0.3)	379 (2.1)	18,249 (100.0)
1995	10,754 (16.7)	906 (1.4)	1,961 (3.0)	11,363 (17.6)	34,986 (54.3)	1,465 (2.3)	199 (0.3)	262 (0.4)	1,548 (2.4)	991 (1.5)	64,436 (100.0)
1996	6,715 (9.6)	2,506 (3.6)	3,069 (4.4)	13,666 (19.6)	36,340 (52.2)	1,907 (2.7)	290 (0.4)	2,172 (3.1)	960 (1.4)	2,013 (2.9)	69,639 (100.0)
1997	17,048 (14.8)	2,877 (2.5)	5,888 (5.1)	30,399 (26.4)	33,970 (29.5)	3,565 (3.1)	3,948 (3.4)	3,319 (2.9)	13,098 (11.4)	1,160 (1.0)	115,270 (100.0)
1998	19,944 (15.4)	5,054 (3.9)	4,717 (3.6)	21,467 (16.6)	28,543 (22.0)	3,707 (2.9)	9,475 (7.3)	5,495 (4.2)	28,923 (22.3)	2,355 (1.8)	129,679 (100.0)
1999	17,834 (8.4)	42,691 (20.2)	4,962 (2.3)	50,542 (23.9)	36,286 (17.1)	3,832 (1.8)	16,953 (8.0)	7,307 (3.4)	26,985 (12.7)	3,484 (1.6)	211,832 (100.0)
2000	25,896 (9.5)	95,528 (35.0)	4,752 (1.7)	20,497 (7.5)	43,433 (15.9)	5,414 (2.0)	13,995 (5.1)	28,075 (10.3)	32,122 (11.8)	3,042 (1.1)	272,775 (100.0)
2001	33,189 (14.6)	63,846 (28.2)	3,686 (1.6)	11,176 (4.9)	52,388 (23.1)	2,604 (1.1)	16,703 (7.4)	14,560 (6.4)	27,155 (12.0)	1,480 (0.7)	226,787 (100.0)

2. 위탁가공교역

위탁가공교역은 남한의 원부자재를 북한으로 반출한 후 이를 가공하여 완제품 또는 반제품으로 다시 반입하거나 제3국에 수출하는 방식의 교역이다. 1991년 코오롱상사가 학생용 가방을 위탁가공교역으로

생산한 이래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여 1999년에는 전년보다 40.3%, 2000년에는 29.7% 증가하였다. 2000년도 위탁가공교역액은 1억 2,919만달러로 전체 교역액의 30.4%, 거래성 교역액의 52.9%를 차지하고 있다. 2001년도 위탁가공교역액은 1억 2,492만달러로 전체 교역액의 31.0%, 거래성 교역액의 52.9%를 차지하고 있다.



위탁가공교역으로 반입되는 물품은, 의류, 가방, 신발, 완구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 1996년부터는 칼라TV, TV스피커, 자동차배선 등으로 그 품목이 점차 다양화되고 있다. 1998년에는 컴퓨터모니터 부품, 음향기기, 전자부품, 철도차량, 카세트테이프 등이, 2000년에는 라디오카세트, 유선전화기, 컴퓨터모니터, 당면 등이 새로운 생산 품목으로 추가되었다. 2001년에는 조제과실, 잎담배, 유아복, 방송통신기기, 전산기록매체 등이 새로운 생산 품목으로 추가되었다.

위탁가공생산을 위한 기술지도 방북은 1995년에 대동화학의 기술진에 의해 처음 이루어진 이래 중단되었다가 1998년에 (주)엘칸토 등 7개 기업 50명, 1999년에 (주)성남전자공업 등 6개 기업 57명, 2000년에는 (주)IMRI 등 10개 기업 81명이 방북, 기술지도를 하였다. 또한, 전기용품의 형식승인기관인 기술표준원 관계자 2명이 최초로 현지공장에 대한 확인검사를 위해 북한을 방문하였다.

2001년에는 (주)성남전자공업 등 29개 기업 203명이 방북, 기술지도를 하였다. 또한 대한광업진흥공사 관계자 2명이 최초로 북한 광물개발을

위한 사업타당성조사를 위해 북한을 방문하였다.

위탁가공교역을 위한 설비반출도 꾸준히 증가하여 1995년 이후 총 124건 2,581만달러로 2001년도에는 52건 899만달러 상당의 설비가 반출되었다. 위탁가공교역 참여업체도 매년 증가하여 2001년에 125개 업체에 이르고 있다. 설비 반출과 참여업체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은 위탁가공교역이 안정적인 성장궤도에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2001년에 반출된 설비는 전자제품(컴퓨터모니터, TV, 전화기, 라디오카세트 등)과 전기제품(변압기철심, 디가우징코일, 컴팩트형 전구, 통신용신호분배기 등) 및 포장재용 발포수지 등 관련설비들이며 앞으로 보다 많은 품목 다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위탁가공교역 >

(단위 : 천달러)

연도	반 입		반 출		합 계	
	전 체	위탁가공	전 체	위탁가공	전 체	위탁가공
1989	18,655	-	69	-	18,724	-
1990	12,278	-	1,188	-	13,466	-
1991	105,719	-	5,547	-	111,266	-
1992	162,863	638	10,563	200	173,426	838
1993	178,167	2,985	8,425	4,023	186,592	7,008
1994	176,298	14,321	18,249	11,343	194,547	25,663
1995	222,855	21,174	64,436	24,718	287,291	45,892
1996	182,400	36,238	69,639	38,164	252,039	74,402
1997	193,069	42,894	115,270	36,175	308,339	79,069
1998	92,264	41,371	129,679	29,617	221,943	70,988
1999	121,604	53,736	211,832	45,883	333,437	99,620
2000	152,373	71,966	272,775	57,224	425,148	129,190
2001	176,170	72,579	226,787	52,345	402,957	124,924
합계	1,642,343	285,936	861,683	242,468	2,504,026	528,404

< 연도별 위탁가공설비 반출 현황 >

(단위 : 천달러)

년 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계
업체수(건수)	2(2)	3(6)	4(4)	6(6)	13(16)	20(35)	30(52)	78(121)
금 액	532	670	490	1,380	5,234	7,653	8,993	24,952

< 연도별 위탁가공 참여업체 현황 >

(단위 : 개)

년 도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업체수	4	7	9	18	38	48	72	132	151	125

제3절 남북 교통·통신망 연결

1. 경의선 철도·도로 등 남북간 교통로 연결

가.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2000년 제1차 남북장관급회담(2000.7.29~31)에서 경의선 철도의 끊어진 구간을 연결하기로 하고,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2000.8.29~9.1)에서 서울~신의주 사이의 철도를 연결하며, 문산~개성사이의 도로를 개설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우리 정부는 2000년 9월 18일 기공식을 시작으로 역사적인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정부는 공사의 추진을 위해 범정부차원의 「남북철도연결사업추진단」을 구성하여 관련부처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분담하게 하는 등 사업을 총괄·조정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철도청은 문산역에서 임진강교까지의 노반공사(7.9km)와 철도 전구간의 궤도, 전기, 신호공사를 담당하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통일대교 북단에서 군사분계선까지의 도로(5km) 설계, 용지보상, 구조물, 포장공사를 담당하며, 국방부는 임진강교에서 군사분계선 철도구간(4.1km)의 노반공사와 지뢰제거, 통일대교 북단에서 군사분계선 도로구간(5km)의 노반공사 및 지뢰제거 작업을 담당하게 되었다.

한편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공사는 군사적으로 민감한 비무장지대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남북 군사당국간의 긴밀한 협조가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2000년 9월 26일 남북국방장관회담에서 쌍방은 경의선 철도와 도로연결 공사를 위하여 각 측의 비무장지대 안에 인원과 차량, 기재들이 들어오는 것을 허가하고 이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남과 북을 연결하는 철도·도로 주변의 비무장지대를 개방하여 남북관할지역을 설정하는 문제는 정전협정에 기초하여 처리해 나가도록 하였다.

이러한 남북간의 합의내용에 따라 2000년도의 세 차례 남북군사실

무회담(11.28, 12.5, 12.21)과 2001년의 두 차례 남북군사실무회담(1.31, 2.8)을 통해 그 동안 미합의 사안이었던 관리구역의 폭 및 지뢰제거문제와 비무장지대내 지뢰제거 폭파작업시간 등을 최종 타결하였다.

남과 북은 2001년 2월 12일과 14일 두 차례의 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 접촉을 갖고 쌍방 국방부장관이 서명한 합의서를 교환기로 합의하였으나, 합의서 교환을 하루 앞둔 2001년 2월 11일 북측이 행정상의 이유로 동 합의서의 서명·교환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함에 따라 2001년 12월 현재까지 서명·교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철도·도로를 이용한 인적·물적 왕래가 이루어질 경우, 처음으로 육로를 통한 출입이라는 점을 감안, 원활한 출입심사·세관·검역 업무와 관련된 기본계획을 마련하였다. 이를 위하여 법무부, 보건복지부, 관세청 등 관련부처 실무자로 구성된 경의선 출입관리시설(CIQ) 실무지원팀을 구성하여 효율적인 계획마련과 공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출입관리시설은 경의선 도라산역사내에 설치될 계획이다. 남북간 화해·협력을 상징하는 태극문양을 상징화한 도라산역사는 향후 철도를 이용한 남북간 인적·물적 왕래에 따른 출입관리기능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북측은 2000년 9월 공사를 시작했으나, 그 해 동절기에 공사를 중단한 이후 재개하지 않고 있으며, 남북군사보장합의서의 서명·교환도 연기됨에 따라 비무장지대의 공사 추진과 경의선 연결에 필요한 남북간 후속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남북관계의 소강국면 가운데에서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1년 7~8월 시베리아횡단철도(TSR)를 이용하여 러시아를 방문, 남과 북을 시베리아횡단철도와 연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러시아와 공동선언하는 등 남북간 철도연결에 대한 의지를 국제사회에서 간접적으로 표명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측은 북측에 경의선 연결에 대한 필요성과 효과를 강조하는 등 북측의 공사재개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다. 그

결과,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2001.9.15-18)에서 남과 북은 “서울~신의주 사이의 철도와 문산~개성사이의 도로를 우선적으로 개성공단에 연결시키기 위하여 쌍방사이의 군사적 보장에 관한 합의서가 서명·발효되는 데 따라 연결공사가 곧 착수되고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개통하기로 한다”고 합의하였다.

우리측은 경의선 연결 일부 구간인 문산~임진강역까지의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001년 9월 30일 임진강역까지 연장운행(주중에는 매일 5회, 주말 및 공휴일에는 매일 9회 왕복 운행)을 시작하였다. 이는 50년 동안 끊어진 철도의 전구간은 아니지만 일부구간이라도 우선 개통함으로써 경의선 연결사업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과 기대에 어느 정도 부응하기 위한 것이며, 현재 일평균 3천명이 이용하고 있다.

또한 경의선 철도·도로연결구간은 지난 50여년간 인적왕래가 없었던 지역으로서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2000년 9월 21일 환경 및 생태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된 환경생태계보전공동조사단을 발족하여 지형·지질·동식물 등 6개 분야에 대한 7차례 조사를 실시, 동·식물 생태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뿐만 아니라 시공시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이행상태를 점검하고 사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한편, 3개월마다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앞으로 경의선 철도·도로가 연결될 경우 남북간 교역에 있어서 장애요인인 물류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 향후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중국횡단철도(TCR) 등과의 연계를 통한 동북아의 새로운 물류축을 구축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나. 남북간 수송장비 운행

2001년 12월 현재 남북간에는 남북간 교역물자 수송을 위해 인천-남포간·부산-나진간, 금강산 관광을 위해 속초-장전간, KEDO 인력수송을 위해 속초-양화간 등 4개 항로에 정기선이 운항 중에 있으며, 이외에 다수의 부정기선들이 남북을 오가고 있다. 특히 인천-남포간에는 2000년 11월부터 2001년 2월까지 선박운항 중단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으나, 곧 정상화되어 현재 주당 1회씩 운항하고 있다.

2001년 남북간 선박운항 횟수는 편도기준으로 총 1,686회로 전년대비 18.7% 감소하였다. 이 중 남한에서 북한으로의 운항은 766회로 전년대비 16.4% 감소하였고, 북한에서 남한으로의 운항은 920회로 전년대비 20.5% 감소하였다. 이러한 감소원인은 연초 인천-남포간 선박운항 중단사태, 금강산 관광선의 운항 감소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남북간 선박운항 현황>

(단위 : 회)

구 분	1994. 7~12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계
남한→북한	27	99	101	113	260	731	916	766	3,013
북한→남한	70	208	221	244	342	983	1,157	920	4,145
계	97	307	322	357	602	1,714	2,073	1,686	7,158

2001년 남북간 선박에 의한 물동량은 총 837,653톤으로 전년대비 19.1%가 증가하였다. 남한에서 북한으로의 물동량은 598,321톤으로 전년대비 9.3% 증가하고, 북한에서 남한으로의 물동량은 239,332톤으로 53.5%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는 농산물, 광산물 등의 반입량과 대북지원물자 반출량의 증가에 따른 것이다.

<남북간 물동량 현황>

(단위 : 톤)

구 분	1994. 7~12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계
남한→북한	6,758	281,220	147,888	361,282	396,111	780,593	547,262	598,321	3,119,435
북한→남한	131,136	345,778	187,610	249,759	162,220	203,019	155,883	239,332	1,674,737
계	137,894	626,998	335,498	611,041	558,331	983,612	703,145	837,653	4,794,172

한편, 남북간 항공기 운항은 2000년에 남북정상회담시 남북 직항로를 최초로 운항한 이후 총 43회가 운행되었으며, 2001년에도 제3차 이산가족 방문단, 고 정주영 회장 조문단 수송 등 편도기준으로 북한→남한 11회, 남한→북한 8회 등 총 19회가 운행되었다.

<남북간 항공기운항 현황>

(단위 : 회)

구 분	2000	2001	계
남한→북한	20	8	28
북한→남한	23	11	34
계	43	19	62

2. 남북간 통신망 연결 및 운영

1971년 남북적십자 제1차 예비회담에서 쌍방연락사무소를 연결하는 직통전화의 가설, 운영이 필요하다는 데 합의함으로써 1945년 남북 쌍방간의 전화운용이 중단된 이래 26년만에 전화연결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어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의 발표를 계기로 남북조절위원장 간 전화가 1회선 개통되었으며, 각종 회담에 대비하기 위하여 같은 해 8월에는 서울과 평양간 회담지원용 전화 18회선이 개통되었다.

그러나 1975년 북측이 일방적으로 직통전화 운용을 중단한 이래 일부 전화회선의 재개통과 폐쇄가 반복되다가 1984년 북한의 수해물자 인수와 관련한 남북적십자회담을 계기로 직통전화선이 재개통되었다.

2001년 12월말 현재 남북한간에 직접 연결된 전화는 29회선이며, 제3국을 경유하여 간접 연결된 전화는 27회선이 설치되어 있다. 직접 연결된 전화는 남북당국간 합의에 의해 설치된 것으로 연락업무 및 회담지원을 위해 이용되고 있다.

제3국을 경유하여 간접 연결된 전화는 경수로사업과 금강산 관광 및 평양실내종합체육관 건설을 지원하기 위한 통신망이다.

<남북간 직접연결 전화 현황>

(2001.12.31 현재)

용 도	구 간	회선수	연결시기
남북적십자간직통전화	서울~평양	2	1971. 9.22
남북조절위원회	남북조절위원장간	1	1972. 7. 4
남북회담지원용	서울~평양	18	1972. 8.26
남북경제회담용	서울~평양	1	1984.12.21
판문점 공동경비 구역내 남북직통전화	남북적십자회담연락사무소간	2	1971. 9.22
	남북연락사무소간	2	1992. 5.18
남북한 관제통신망	대구-평양관제소(판문점경유)	2	1997.11.19
	대구-평양관제소(위성통신)	1	1998. 2.17
합	계	29	

<남북간 간접연결 전화 현황>

(2001.12.31 현재)

용 도	구 간	회선수	연결시기
KEDO 경수로사업용	한국~일본KDD~인텔셋~평양~신포	8	1997. 8. 4
		2	2000. 7.26
		6	2001. 5.23
금강산 관광지원용	한국~일본IDC~인텔셋~평양~원산~ 온정~장전	6	1998.11.17
		2	1999. 5.18
평양실내종합체육관용	한국~일본IDC~인텔셋~평양~원산 ~온정~장전	3	2000.11.21
합	계	27	

한편, 1998년 10월 남북간에 체결된 관제협정에 따라 대구향로관제소와 북한의 평양향로관제소간에 관제통신망이 연결되었다. 남북 관제통신망의 주회선은 1997년 11월 19일 설치된 판문점 경유 남북간 직통전화로 2회선이 개설되었고, 보조회선은 1998년 2월 17일 인공위성(ASIASATⅡ)을 이용, 남북 직접연결 방식으로 1회선이 개통되어 운영

되고 있다.

또한, 북한 금호지구에서 KEDO 경수로 사업이 시작됨에 따라 사업의 원활화와 공사인력들을 위한 통신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 통신이 1997년 8월 1일 'KEDO 경수로 사업을 위한 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 승인을 받아 기존의 북한 통신설비를 이용하여 같은 해 8월 4일 8회선, 2000년 7월 26일 2회선을 개통하였다.

경수로 사업의 확대에 따라 통신망의 확충이 절실하게 되었고, 한국 통신은 2001년 2월 5일 투자규모를 14만달러로 하는 협력사업 변경승인을 받았고, 이어 디지털 통신장비 반출을 통해 5월 23일 디지털 1회선을 개통하였다. 디지털 1회선은 음성전화용으로는 6회선이 가능하므로 남한 인력을 위해 5회선, 우즈베크 인력을 위해 1회선이 이용되고 있으며 모두 공중용이다. 이에 따라 경수로 통신망은 총 16회선이 되었다.

현대-아태간의 「금강산관광을 위한 부속계약서」는 “금강산 관광사업과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통신시설 제공 및 이용을 보장한다”고 명기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1998년 10월 19일 현대전자산업(주)과 북한의 금강산국제관광총회사간에 「통신보장을 위한 합의서」가 체결되었다. 또한 같은 해 11월 12일 현대전자산업(주), 한국전기통신공사, (주)온세통신이 공동으로 금강산관광을 위한 통신협력사업의 1단계 사업에 대한 협력사업 승인을 받아 11월 17일 제3국 경유 국제전화방식으로 6회선, 1999년 5월 18일 2회선 등 총 8회선을 개통시켰다.

2000년 11월 20일 금강산관광을 위한 통신협력사업의 통신가능 지역을 금강산지역에서 금강산지역과 평양으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 협력사업 변경승인으로 남북간 민간차원에서는 최초로 남북간 직접통화가 가능하게 되었다. 2001년 12월 현재 전화 2회선 및 팩스 1회선을 포함 총 3회선이 평양실내종합체육관 건설에 사용되고 있다.

한편 2001년 10월 4일 현대시스콤(주)이 현대전자산업(주)의 통신부문을 인수하여 협력사업자 변경승인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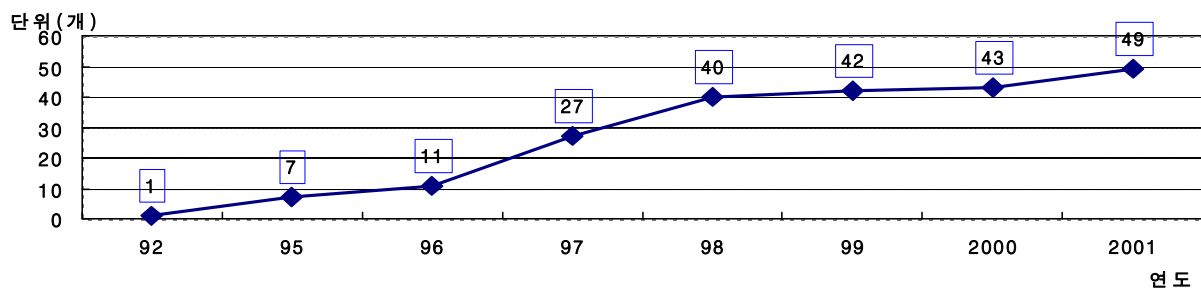
제4절 남북경제·사회문화협력 확대

1. 남북경제교류협력

가. 협력사업(자) 승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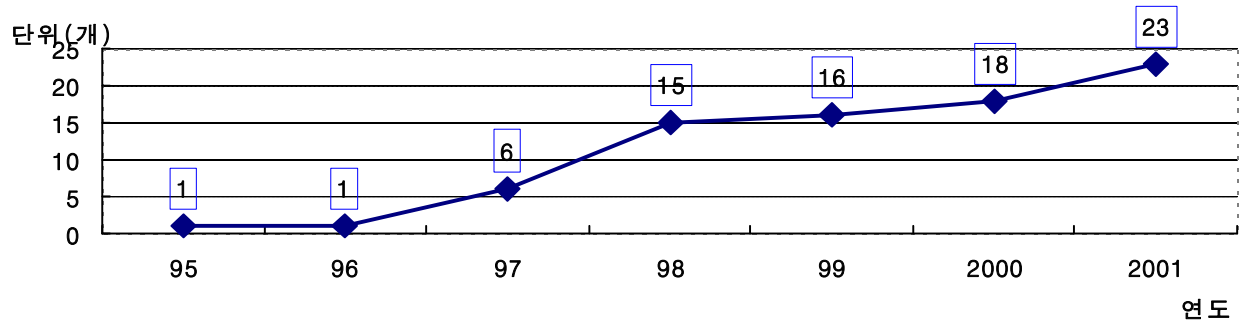
1992년 10월 5일 (주)대우의 남포공단 합영사업이 최초로 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은 이래 2001년 12월말 현재까지 49건의 협력사업자 승인, 23건의 협력사업 승인이 있었으며,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에는 19건의 협력사업자 승인, 16건의 협력사업 승인이 있었다. 2001년에는 하나비즈닷컴, 엔트랙, G-한신, 국양해운, 훈넷 등 5건의 협력사업 승인이 이루어졌다.

연도별 협력사업자 승인추이(누계)



* 경제분야 협력사업자 중 취소사유 발생으로 4건이 취소됨.('99.12.23)

연도별 협력사업 승인추이(누계)



* 협력사업자 승인 취소에 따라 협력사업 승인을 받았던 1건이 취소됨.(’99.12.23)

< 남북경제 협력사업(자) 승인 현황 >

※ 표시는 협력사업 승인까지 받은 기업

▲ 표시는 협력사업자 승인이 취소된 기업(4건에 대해 '99.12.23 취소)

(2001.12 현재)

기 업	사 업 내 용	지 역	금 액	사업자승인일 (사업승인일)
※ 대우 (합영)	남포공단 셔츠, 가방, 자켓 등 3개 사업	남포	512만달러	'92.10.5 ('95. 5.17)
고합물산 (합영, 합작)	의류 · 봉제, 직물 등 4개 사업	남포, 나진, 선봉, 평양	686만달러	'95. 5.17
한일합섬 (합영, 합작)	웨타, 봉제, 방적 등 4개 사업	"	980만달러	'95. 6.26
국제상사 (합영, 합작)	신발	"	350만달러	'95. 6.26
※ 녹십자 (합작)	의약품(유로키나제) 제조	평양 통일구역	311만달러	'95.9.15 ('97.11.14)
동양시멘트 (단독투자)	시멘트 싸이로 건설	나진, 선봉	300만달러	'95. 9.15
동통해운 (단독투자)	하역설비(크레인 등)	"	500만달러	'95. 9.15
삼성전자 (합작)	나진선봉 통신센터	"	700만달러	'96. 4.27
※ 태 창 (합영)	금강산 샘물 개발	강원도 고성군	580만달러	'96.4.27 ('97.5.22)
대우전자 (합영)	TV 등 가전제품 생산	남포	640만달러	'96. 4.27
※ 한국전력공사	경수로건설지원사업	신포	4,500만달러 →11,430.8 만달러	'96. 7.15 ('97.8.16→ '99.8.10변경)
	대북경수로 건설사업 본공사 (TKC)	금호지구	40.8억달러 (PWC금액 포함)	('99.12.15)
※ 미흥식품 (합영)	수산물 채취 · 가공	청진, 함흥, 원산, 남포	47만달러	'97. 5.22 ('98. 3.13)
▲신일피혁	피혁, 의류 봉제	나진 · 선봉	300만달러	'97. 5.22 ('98. 3.13)
한 화 (합작)	PVC장판 제조	평양, 남포	90만달러	'97. 5.22
LG전자 /LG상사 (합영)	전자제품(컬러TV) 조립생산	평양	450만달러	'97. 5.22 '97.10.14 (변경승인)

기 업	사 업 내 용	지 역	금 액	사업자승인일 (사업승인일)
※ 한국통신	경수로건설통신지원사업	신포	14만달러	'97.8.1 ('97.8.1→ '01.2.5변경)
삼성전자 (합영)	전전자교환기 등 통신설비생산	나진, 선봉	500만달러	'97. 8. 1
코오롱상사 (합작)	섬유 및 섬유제품 가공·생산	평양, 남포	400만달러	'97. 8. 1
신 원 (합작)	의류·봉제사업	평양	100만달러	'97. 8. 1
파라우수산 (합영)	수산물 생산·가공	원산, 해주	300만달러	'97. 8. 1
금오식품 (합작)	냉면·고구마전분 제조	평양	40만달러	'97. 8. 1
한국토지공사 (단독투자)	나진·선봉지대 시범공단 조성	나진, 선봉 (유현지구)	.	'97.10.14
대상물류 (단독투자)	나진·선봉 국제물류 유통기지 개발·운영	나진, 선봉 (동명지구)	420만달러	'97.10.14
삼천리자전거/L G상사 (합영)	자전거 조립·생산	나진, 선봉	800만달러	'97.10.14
※태영수산/LG 상사 (합영)	가리비 양식·생산	나진, 원산	65만달러	'97.10.14 ('98. 8.28)
※한국외환 은행	경수로사업 부지내 은행점포 개 설	금호	.	'97. 11.6 ('97.11.6)
※(주)아자커뮤 니케이션(합 영)	인쇄물 및 TV광고 제작	평양, 기타 지 역	편당 25만달러	'97.11.14 ('98. 2.18)
(주)에이스침대 (합작)	침대 및 가구 제조·판매	평양 락랑구 역	425만달러	'98. 1. 9
롯데제과 (합영)	과자류(초코파이) 생산 및 판매	평양	575만달러	'98. 1. 9
(주)광인 (단독투자)	옥외광고(야립, Push Cart, 옥상 및 도시형 간판, 내부벽면 부착 광고 등)	평양, 나진, 선봉	250만달러	'98. 2. 18
안성개발 (합작)	참기름 가공공장 설립	남포	50만달러	'98. 3.13
※두레마을영 농조합법인 (합작)	나진, 선봉지대 합영농장 운영 및 계약재배사업	나진, 선봉	200만달러	'98. 4. 8 ('98. 7.27)
※ 국제 옥수수재단 (조사·연구)	새품종 생산력 검정시험 및 재배 적지 확정, 신품종 슈퍼옥수수개 발을 위한 공동연구	평양, 기타	30.9억원 →110억원 ('99.3.25) →216억원 ('01.6.20)	'98. 6.18 ('98.6.18→ '99.3.25변경 '01.6.20 변경)

기 업	사 업 내 용	지 역	금 액	사업자승인일 (사업승인일)
▲세원 커뮤니케이션	북한올림픽 위원회 스폰서쉽 대행		미정	'98.8.6
※(주)현대상선, 현대건설, 금강개발산업 현대아산 (‘99.2.25) 한국관광공사	금강산관광사업(‘98.9.7)→금강산 관광 및 개발사업 (‘99.1.15)	금강산	9,583만달러 →1억33만달 러(‘99.1.15) →1억4,867만 달러 (‘99. 4.16) →1억8,739만 달러	'98. 8. 6 (‘98.9.7→ '99.1.15변경 '99.4.16변경 '00.1.8 변경 '00.9.21 변경 '01.6.23 변경)
※(주)코리아랜드 (합영)	북한부동산개발(임대·분양) 및 컨설팅업	평양	60만달러	'98. 8.28 (‘98. 8.28)
▲성화국제그룹	원정국제자유시장 건설·운영 및 평양지역내 백화점 운영	나진·선봉, 평양	190만달러	'98.9.14
▲아이엠시스템	방송용 광고제작	.	미정	'98.10.17
※ 백산실업 (합영)	버섯배지 생산 및 국내농가 보 급, 표고·느타리·진주 등 버섯 류 생산·수출	나진, 선봉 (선봉군읍)	20.8만달러 (남북한총투자 액: 81만달 러)	'98.10.28 (‘98.10.28)
※현대시스코,한 국통신, 온세통신	금강산 관광 및 평양 실내체육관 건설을 위한 통신협력사업	금강산 관광 지역내, 평양	13만달러	'98.11.11 (‘98.11.11→ '00.11.20변경)
(주)해주 (합작)	북한수산물 생산 및 판매	서해 인근	299만달러	'99. 1. 8
※평화자동차 (합영)	자동차 수리 및 조립공장 건설	남포	666만달러 →5,403만달 러	'99. 8. 31 (‘00. 1. 7→ '00.10.21변경)
※ 삼성전자	남북 S/W 공동개발	중국 북경	72.7만달러 →154.4만달 러	'00. 3.13 (‘00. 3.13→ '01.6.16 변경)
※ 하나비즈닷컴 (합영)	남북 프로그램 공동개발, 공동 개발단지 조성	중국 단둥	200만달러	'01. 4. 28 (‘01. 7.18)
※ 엔트랙(합영)	정보기술·공동 제품개발 협력사 업을 위한 「고려정보기술센터」 건립운영	평양	400만달러	'01. 4. 30 (‘01. 8.22)
※ G-한신(합작)	북한내 유리제품 생산시설 설립 운영	평양	290만달러	'01. 7. 18 (‘01.10.16)
IMRI(합작)	북한내 발포성 수지 생산공장 설 립운영	평양	70만달러	'01. 10. 16
※국양해운(단독)	해상 운송사업 및 하역시설 개선 사업	남포	61.9억원	'01. 11. 21 (‘01. 11. 21)
※훈넷(합영)	인터넷 게임S/W 공동개발 및 서비스	평양	20만달러	'01. 12. 29 (‘01. 12. 29)

나. 민간주도 협력사업

(1) 개성공단 개발사업

현대가 개성공단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면서 북한내 공업단지 조성을 위한 대규모 경제협력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1999년 10월 1일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방북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현대의 서해안공단 조성사업에 관심을 보이면서 현대의 사업계획에 원칙적으로 동의하였다. 이로써 현대와 아태간에 의향서 수준의 합의서가 체결되었다.

현대는 2000년 8월 한국토지공사 관계자들과 함께 개성지역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고, 8월 9일에는 정몽헌 회장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개성지역 산업단지 조성에 합의하였으며, 현대-아태간에 관련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이후 11월에는 현대와 한국토지공사가 공단개발을 공동 시행키로 합의하고, 개성직할시의 개성시 및 판문군 평화리 일대의 개성공단 예정지에 대해 현지측량 및 지질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어 2000년 12월 2일에는 개성공단내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국제자유경제지대기본법(안)」을 북측에 전달하고, 2001년 1월 16일~1월 19일간 금강산지역에서 북측 관계자들과 개성공단 관련 법 및 규정에 대해 협의하였다.

2001년 9월 개최된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는 개성공단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실무접촉을 빠른 시일내에 갖기로 합의함으로써 개성공단 개발사업의 활발한 진행이 기대되었으나 전반적인 남북관계 소강국면과 맞물려 현재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경의선과 개성-문산간 도로가 개통되어 남북이 연결될 경우 개성지역은 남한과의 접근성이 양호할 뿐 아니라, 개성시를 배후도시로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전력·용수·통신·가스 등 외부 기반시설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마련이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2) 제조업분야 협력사업

2000년 이후 일부 제조업 분야에서는 사업이 본궤도에 올라 제품 생산 및 반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녹십자는 2000년 9월에 준공한 혈전증 치료제 생산공장에서 반제품 시험생산을 거쳐 2001년 7월에는 반제품을 최초로 반입하였다. 2000년 3월 승인받은 삼성전자의 5개 S/W 공동개발사업은 대부분 완료된 상태이며, 추가로 16개 S/W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다. 또한, 평화자동차는 2000년 1월 협력사업 승인을 받아 우선 1단계로 자동차 수리·개조공장을 완공하였다. 2000년 10월 착공된 본공장은 2002년 3월 준공식 이후 2006년까지 약 15,000대 규모의 자동차를 조립·생산할 계획이다.

(3) 농·어업분야

농·어업분야 경제협력사업은 인적·물적교류 유발효과가 크고, 북한의 식량난 해결에 바람직한 협력형태이나 북측의 농업기반이 매우 취약한 현 상황에서는 민간차원의 협력사업 추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국제옥수수재단이 추진하고 있는 옥수수 신품종 개발 협력사업은 2001년말까지 22차례 방북하는 등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며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한국담배인삼공사는 담배 임가공사업에 이어 인삼 및 잎담배 계약재배 추진을 위한 시험재배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북측과 협의하고 있는 단계이다.

그리고, 현대아산의 금강산지역 영농사업은 2000년 2월 첫 농산물을 출하한 이래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금강산 관광객의 감소로 인해 잉여 생산물의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2000년 12월의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북측이 어업분야에서의 협력을 제의하는 등 사업추진에 있어서 새로운 방향이 모색되고는 있으나, 현재까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수산품의 단순교역과는 달리 협력사업은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상황이다.

다. 남북당국간 경제협력사업

(1) 임진강 공동 수해방지사업

최근 수년간 임진강 유역에서 홍수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해 왔으나, 이에 대한 방지 노력은 남북을 관류하고 있는 임진강의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해 일방의 노력만으로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향후 개성공단 등 접경지역개발에 대비해 용수공급시설을 확충해야 할 필요성도 예상되므로 임진강 수해방지사업은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남북협력사업이라 하겠다.

이에 따라 1999년 8월 11일 정부는 대한적십자사 정원식 총재 명의로 북측에 서한을 보내 임진강 유역의 홍수방지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 당국간 실무접촉을 제의한 바 있다.

남북은 2000년 8월 개최된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임진강 수해방지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김용순 특사 방문(2000.9.11~14)시에는 남북공동으로 조사를 실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또한, 2000년 12월 제1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실무협의를 구성, 구체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01년 2월 제1차 남북임진강수해방지실무협의회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 남북은 조사단 구성 및 대상, 방법 등에 상당한 의견 접근을 보았다. 2001년 9월에 개최된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는 이미 협의한 바탕 위에서 쌍방 군사당국사이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는 대로 11월중 현지조사에 착수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이후 남북 간 소강상태가 지속되면서,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향후 북측과의 협의를 통해 임진강 공동 수해방지사업을 위한 남북공동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2) 전력협력사업

북측은 2000년 12월 개최된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우리측에 전력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어 제1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남북 쌍방은 우선 전력상황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현지 실태조사단을 구성하여 실태조사를 한 후, 이를 토대로 전력협력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01년 2월 제1차 남북전력협력실무협의회가 개최되었으나 남북간 입장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우리측은 남북한의 전반적인 전력실태에 대한 공동조사 후 전력협력문제를 논의하자고 주장한 반면, 북측은 송전방식을 통한 50만kW 지원을 전제로 한 제한적인 실태조사만을 주장하였다.

앞으로도 정부는 먼저 실태조사를 통해 경제적·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한편, 우리의 경제여건과 전반적인 남북관계 진전상황, 국민여론 등을 고려하면서 신중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라. 국제기구를 통한 협력

정부는 유엔개발계획(UNDP) 주관의 두만강개발계획(TRADP) 등 국제기구가 추진하는 북한 관련 사업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TRADP는 두만강지역을 세계적인 수준의 교통·관광 중심지 및 가공·제조업 중심지로 개발하여 동북아 국가들의 경제협력 거점을 마련하려는 사업으로 UNDP가 주관하고 남북한, 중국, 러시아, 몽골이 회원국으로 참가하고 있다.

1991년 10월 두만강개발계획이 시작된 이래 회원국들은 '점진적 조화'를 개발방식으로 채택하고 현실성 있는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이 사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5개국위원회(남, 북, 중, 러, 몽골)와 접경 3개국위원회(북, 중, 러)를 구성하고, 실무작업반(Working Group) 회의 및 TRADP 사업의 행정적 지원을

위한 두만사무국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2001년 4월 개최된 제5차 5개국위원회에서는 3단계 TRADP 사업계획(2001~2003)을 승인하면서 동 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동북아지역 협력강화에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관광, 교역 및 투자활성화, 수송, 환경, 통신 등 부문별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재원 조달방안을 검토하는가 하면 운영조직을 개혁하는 등 사업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기도 하였다.

또한, 정부는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세계식량계획(WFP) 등 국제기구를 통하여 북한의 농업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북한의 외자유치 능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아시아개발은행(ADB),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IBRD) 등 국제 금융기구에 북한이 가입할 수 있도록 서방국가 및 국제기구로부터의 지지의 확산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처럼 정부는 국제기구가 추진하는 경제협력에 남북한이 공동으로 참여함으로써 남북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고 북한의 개방과 변화를 유도하는 한편, 주변국과의 경제협력을 증대함으로써 통일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마. 남북경제협력 제도화

남북교류협력을 정치나 이념에 크게 영향받지 않으면서 안정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남북교류협력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에 발생할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들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를 규율하고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남과 북은 1992년에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와 「교류협력부속합의서」에서 남북한 주민들의 자유로운 왕래를 보장하고 투자보장·이중과세 방지·분쟁조정절차·청산결제에 대해 쌍방이 합의하여 정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남북관계의 상황변화로 이러한 남북간의 합의가 이행되지

못함에 따라 남북한은 공통의 법·제도적 기반 없이 각각의 법제와 민간 당사자간의 개별적 합의에 의해 경제협력을 비롯한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해 왔다.

우리측은 남북경제협력의 제도화가 시급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6·15 남북공동선언에 따라 개최된 남북장관급회담을 통해 남북교류협력의 제도적 장치 마련을 북측에 지속적으로 촉구하였으며, 그 결과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확대·발전시키기 위하여 투자보장, 이중과세 방지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고 합의하였다.

남북은 두차례 경협실무접촉을 갖고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상사분쟁 해결절차, 청산결제 등 4개 합의를 타결하고 이에 가서명하였고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양측 수석대표에 의해 2000년 12월 16일 정식 서명되었다.

남북경협 4개 합의서는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 합의서」, 「남북사이의 상사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남북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양측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에 문본을 교환한 날로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합의서중 「상사분쟁해결절차」, 「청산결제」 합의서는 각각 후속조치를 위한 남북간의 협의를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남북경협 4개 합의서가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며, 남북간의 투자사업에 있어서 투자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조약방식’ 발효가 필요하다고 보고 국무회의(2001.5.22)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4개 합의서안에 대한 체결동의안을 2001년 6월 1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2001년 12월 현재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

남북경협 4개 합의서는 남북경제협력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공동규범이 남북한 합의에 의해 최초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앞으로 4개 합의서가 발효되면 남북경제협력은 보다 안정적인 토대 위에서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경협 4개 합의서

체결을 계기로 다른 분야에서의 제도화도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4개 합의서의 발효 및 관련 후속조치들을 북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각 합의서들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며, 이와 함께 통행·통신, 산업재산권 보호, 원산지 관련 규정 등 남북경제협력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확대해 나가는 데 필요한 다른 제도적 장치들에 대해서도 북측과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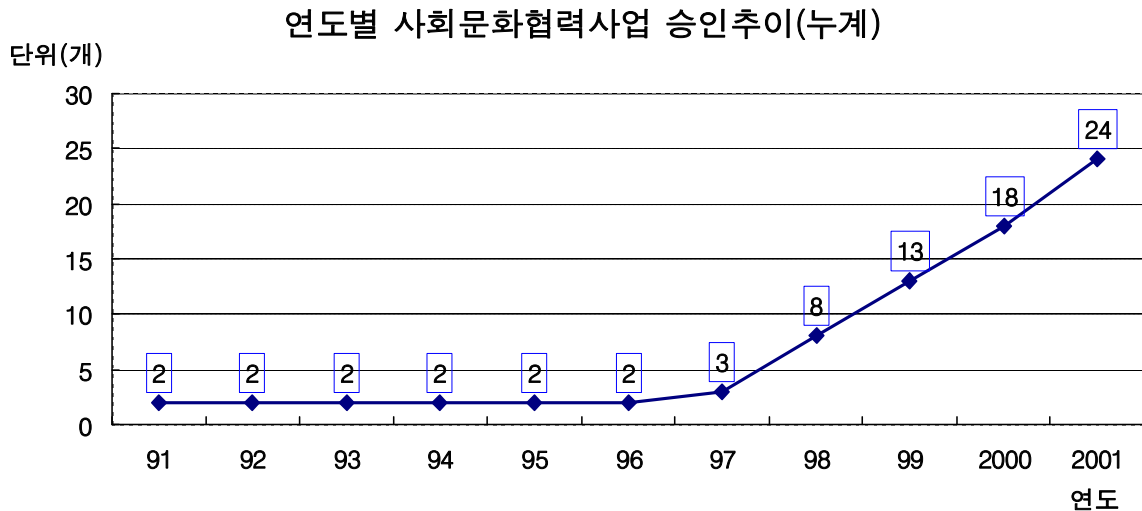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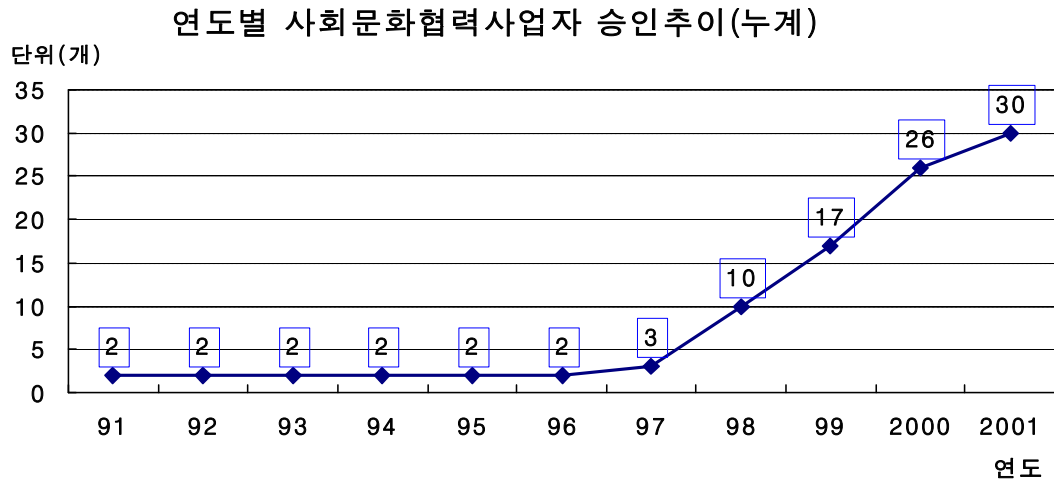
2.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

가. 협력사업(자) 승인

1991년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일본 지바) 남북단일팀 참가에 대한 최초의 남북사회문화협력사업 승인 이후 2001년 12월말 현재까지 30개 단체가 협력사업자승인을 받았다.

사회문화교류협력은 오랜 분단으로 인한 남북간의 문화적 이질성을 해소하고,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정부가 승인한 주요 사회문화 협력사업은 1991년 2건(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남북단일팀 구성 참가, 제6회 세계 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 남북단일팀 구성·참가), 1997년 1건(북한문화유적 답사·조사), 1998년 7건(나진·선봉 과기대 설립·운영, 남북사진작품전 등), 1999년 7건(평화를 위한 국제음악회 평양·서울공연, 민족통일음악회 방북공연, 평양실내종합체육관 건설 등), 2000년 9건(평양교예단 서울공연, 남북합작영화 아리랑 제작 등), 2001년에는 6건(평양신학원 재개원 및 운영지원, 춘향전 남북합동공연, 3D 단편 애니메이션 남북공동제작, 평양정보과학기술대학 건립·운영, 남북공동사진전 「백두에서 한라까지」, 통일염원 6.15 금강산 랠리 등) 등이다.



나. 금강산 관광사업

금강산 관광사업은 1998년 11월 18일 시작된 이래 사업주체인 현대아산의 자금사정 등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관광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기반 마련과 내실있는 사업운영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현대측은 우선 과도한 관광대가에 대한 조정과 관광활성화를 위한 제반 조치를 모색하기 위해 2000년말부터 북측 아태와 협의를 시작하여 2001년 6월 8일 관광활성화 조치에 합의하였다.

합의내용은 첫째, 매월 1,200만불씩 지급하던 관광대가를 관광활성화시까지 관광객수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으며, 둘째 관

광활성화를 위해 육로관광과 관광특구를 지정하는 것 등이다. 이에 따라 사업주체간에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특구지정 등 문제를 협의해 오고 있으나,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또한, 육로관광 추진을 위해 2001년 10월 당국간 회담이 개최되었으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는 도출되지 못했다.

또한 한국관광공사가 사업에 참여(2001.6.20)함으로써 관광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계기가 마련되었다. 2001년 12월 현재 현대와 관광공사는 자산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익률 배분 등 사업참여방법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2000년에는 「금강」·「봉래」·「풍악」호가 차례로 매일 운항되고 「설봉」호가 추가 투입됨으로써 월 평균 15,000여명 이상이 금강산을 관광하였으나, 2001년에는 관광객의 감소와 사업주체의 자구계획의 일환으로 관광선을 점차로 감축운행함에 따라 2001년 12월 현재 「설봉」호만 운항되고 있다.

금강산 관광사업은 비록 민간기업이 추진해 온 협력사업이지만, 남북관계에 있어 긴장완화와 함께 외국인 투자와 국제행사 유치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등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기여해 온 바가 크다. 앞으로 육로관광과 관광특구 지정이 실현되면 금강산 관광사업은 설악권과의 연계관광을 통해 관광활성화를 이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타 분야의 남북간 관광분야 교류와 협력을 보다 확대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 학술분야

학술분야의 협력사업으로는 동북아 교육문화협력재단과 북한 교육성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평양정보과학기술대학 건립·운영 사업」이 있다.

평양과기대 건립·운영은 2001.6.5 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을 동시에 승인받은 사업으로, 평양 낙랑구역에 부지 33만평 건평 2.4만평 규모로 건설되어 2003년 9월 박사원 및 4개 학부(정보과학학부, 생명과학학부, 공학부, 경영정보학부) 규모로 개교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다.

라. 체육 분야

체육분야의 교류는 1991년의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및 세계청소년 축구대회 단일팀 구성·참가 이후 별다른 진전이 없다가 1999년부터 비교적 활발히 추진되었다.

1999년에는 현대아산이 평양에 실내종합체육관을 건설하는 한편, 제 1차 통일농구경기대회를 평양에서 개최(9.28-29)하였다. 이어서 서울에서 통일농구경기대회(1999.12.23-24)를 개최함으로써 1991년 북한 축구선수단의 남한방문 이후 8년만에 북한남녀농구선수단의 남한방문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2000년도에는 우인방커뮤니케이션이 금강산 자동차질주경기대회(2000.7.3-4)를 개최하여 우리측 인원 228명과 차량 47대가 참가하였으며, 현대의 평양실내종합체육관 건설이 본격화되어 평양에 우리 건설근로자들이 상주하는 한편, 건설물자, 장비 등이 판문점을 통해 육로로 운송되기도 하였다. 또한 2000년 시드니올림픽 개막식에서 남북한 선수단이 동시입장(2000.9.15)함으로써 남북화합의 모습을 세계에 보여주었다.

2001년에는 금강산지역에서 제2회 자동차질주경기대회(7.29-31) 및 국제모터사이클 투어링이 개최(8.15)되었다. 우인방커뮤니케이션이 주최한 자동차질주경기대회에는 우리측 인원 209명(참가선수 19팀 72명)과 차량 46대가 참가하였다. 또한 최초로 개최된 국제모터사이클투어링에는 미국·일본·독일 등 12개국 모터사이클 동호인 35명 등 총 399명이 참가하였다.

남북 당국차원에서는 2000년 개최된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에 이어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2001.9.15~18, 서울)에서 남북 태권도시범단 교환사업이 합의됨에 따라 우리측 대한태권도협회와 북한 조선태권도위원회간 판문점을 통한 전화통지문 교환방식으로 동 행사 관련 세부사항 협의를 시도했으나, 북측이 우리측 비상경계조치를 문제삼아 일방적으로 행사를 무기한 연기(10.12) 하였다. 한편, 2001년 3월 김한길 문화관광부장관 방북시 제46회 세계탁구선수권 대회 단일팀 참가에 합의하였으나, 역시 북측이 준비상 이유를 내세워 단일팀 참가가 어렵다고 통보함으로써 이행되지 못했다.

앞으로 정부는 2002년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부산아시아경기대회(9.29-10.14) 등 대규모 국제행사에 북한측의 참가유도를 통해 남북체육교류와 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마. 문화·예술 분야

1998년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남북합동음악회, 공동전시회 등 문화예술 분야의 남북교류가 어느 때보다 활발히 추진되었다. 1998년 리틀엔젤스 예술단 평양공연, 윤이상음악회 참가, 1999년의 평화친선음악회, 민족통일음악회 등 방북공연에 이어 2000년에는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평양학생소년예술단, 평양교예단의 대규모 남한공연이 있었고, 남북교향악단 합동연주회도 이루어졌다

2001년에는 국민의 정부 이후 활성화된 문화예술교류의 맥을 이어 공연뿐 아니라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가 이루어졌다.

춘향문화선양회 주최로 2월 1일 평양봉화예술극장에서 남측의 창무극 춘향전을 공연하고, 다음날인 2월 2일에는 북측에서 민족가극 춘향전을 공연하여 민족적 동질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6월 2일부터 9일까지 평양 청년중앙회관에서 메종드 이영희가 주최한 민족옷 전시회가 있었다. 동 행사는 한복 패션쇼 2회와 한복 전시회로 이루어졌는 바, 패션쇼에는 북한 배우와 어린이가 직접 출연하여 행사의 의미를 더하였다.

2001년은 미술분야의 교류에 있어서도 의미있는 한 해였다. 동해대학교 남북교육문화교류연구소는 조선기자동맹중앙위원회와 함께 남북공동사진전 “백두에서 한라까지”를 개최하였다. 백두대간과 독도 등의 사진 100점(남북 각 50점)을 전시한 이 행사는 평양(6.14-24)과 서울(8.14-23)에서 개최되었는 바, 평양전시회는 남측 관계자 8명이 참석하였으나 서울전시회에는 북측이 참석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또한, 2001년에는 그동안 수차례 시도되었던 애니메이션 분야의 남북합작노력이 결실을 이루었는 바, 하나로통신(주)는 북측의 삼천리총

회사와 3D애니메이션 「게으른 고양이 덩가」의 공동제작을 성사시켜 향후 지속적 교류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바. 언론·출판 분야

언론·출판분야의 협력사업은 1997년 중앙일보사 통일문화연구소가 북한지역 문화유적 답사·조사사업에 대해 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아 방북취재를 실현시키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경향신문사 한민족문화네트워크연구소는 1998년에 「남북통합문화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사업」, 2000년에 「북한문화예술자료 정보화사업」으로 협력사업 승인을 받았다.

2000년에는 언론사 사장단 46명이 북한을 방문하여 북한언론기관 대표들과 남북언론교류협력에 관한 5개항에 합의하였다.

이후 KBS와 SBS는 각각 백두산과 평양에서 생방송을 진행하였다.

2001년에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변화된 상황과 경험을 바탕으로 3월 MBC 여기자 2명이 방북하여 북한의 변화와 주민생활, 풍물을 취재하고 현지에서 방송하였다. 5월 스웨덴의 페르손 총리 방북시에는 국내 기자 8명을 포함, 서방 70여명의 기자단이 동행·취재하였다. KBS는 남북정상회담 1주년을 맞아 연인원 32명이 장기간 북한에 체류하면서 자연, 풍물, 문화분야 방송물을 대규모로 제작하였다. 11월에는 한국방송 프로듀서연합회 관계자들이 방북하여 북측 방송물 제작을 협의하였다.

근래에 이루어진 남북간 공동행사는 취재진 동행을 관행화하고 있다. 2001년 5월 금강산에서 열린 2001 노동절행사, 6.15 통일토론회, 평양에서 열린 8.15 남북공동행사에는 대규모 국내기자단이 동행하여 현장상황을 다양하게 전달해 주었다.

사. 종교 분야

남북한간 종교교류는 각 종단·교단을 중심으로 여타 분야에 비해 비교적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서부연회는 평양신학원 운영과 관련하여 2001년 1월 11일 협력사업 승인을 받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지속적으로 운영에 참여하였다.

또한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는 2001년 3월 28일 북한의 종교인 협의회(KCR)와 일본의 역사 왜곡문제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6.15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서울·평양 남북공동행사 개최문제를 협의하였다.

그리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는 북한의 그리스도교연맹과 2001년 6월에 개최된 독일 교회의 날(6.11~17, 프랑크푸르트)에 공동 참석하여 「남북정상회담 1주년 기념예배」를 실시하고, 제5차 글리온회의를 2002년 상반기에 금강산에서 개최하기로 잠정 합의하였다.

또 천도교 중앙총부는 2001년 6월 개최된 남북천도교 대표자회의(6.20~6.22, 평양)에서 동학사적지 공동조사, 개천절 남북공동행사 등 상호교류문제를 협의하였으며,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은 조선카톨릭교 협회와 함께 한겨레성찬제, 안중근세미나 등을 2001년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평양에서 공동개최하였다.

아. 남북공동행사

2000년 10월 노동당창건행사 참관을 계기로 2001년에는 대규모 남북공동행사를 통한 남북주민들간 접촉이 확대되고 부문별 교류가 확대되었다.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남측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북측의 직업총동맹과 5.1 남북공동행사(금강산, 597명)를 개최하여 남북의 동질성을 확인하고 노동계간의 상호교류 방안을 논의하였다.

6월 14일부터 16일까지 6.15 민족통일대토론회(금강산, 422명)가 개최되어 민간통일단체, 노동계, 여성계 등 다양한 단체들이 참가하였다. 행사에서는 6.15 남북공동선언의 의의를 재확인하고 이의 실천을 위한 남북의 단체별, 계층별 교류협력 확대 등에 대한 상호간의 의지를 확

인하였다.

또한 7월 17일부터 19일까지 남측의 전국농민회연합회와 북측의 농업근로자 동맹간에 남북농민통일대회(금강산, 664명)가 개최되어 6.15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농민들의 상호교류의 필요성 등에 공감하였다.

그리고 8월 15일부터 8월 21일까지 8.15 남북공동행사(평양, 337명)가 개최되었다. 행사중에 참가단 일부가 방북승인 조건을 위반하고 조국통일 3대헌장기념탑 개·폐회식에 참석했고 만경대 참관시 방명록에 서명하는 등 문제가 야기되어 대내적 갈등이 유발되었으나, 6.15 남북공동선언의 적극 실천 및 민간급 교류 사업 활성화 추진을 합의하는 등 긍정적 측면도 있다. 정부는 8.15 남북공동행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민간차원의 교류가 한 차원 높게 성숙·발전되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다.

<남북 사회문화협력사업(자) 승인 현황>

※표시는 협력사업 승인까지 받은 단체임.

(2001.12.31 현재)

사업자	사업상대자	사 업 내 용(지역)	금 액	사업자승인일 (사업승인일)
※ 대한탁구협회	북한탁구협회	제41회세계선수권대회(1991.4.24~5.6) 남북단일팀 구성·참가 (일본)	7억 9천만원 (남북협력기금)	1991. 3.21 (1991. 3.21)
※대한올림픽위원회	북한올림픽위원회	제6회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 (1991.5.27~6.4) 남북단일팀 구성·참가 (포르투갈)	1억 6천만원 (남북협력기금)	1991. 5. 1 (1991. 5. 1)
※통일문화연구소	조선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 조선중앙역사박물관	북한문화유적 답사·조사 (북한지역 역사유적지)	6만달러	1997.12.10 (1997.12.10)
※연변과기대 후원회→ 동북아교육 문화협력재단 (1999.6.29)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나진 선봉시 행정경제위원회	나진·선봉내 과기대 설립·운영 (나진·선봉)	500만달러	1998 .1. 9 (1998. 6. 5)
문화방송	금강산국제관광 총회사	북한의 자연경관 및 명승고적 TV 프로그램 촬영(평양, 개성, 백두산, 금강산 등)	60만달러	1998. 3.13
※한민족복지재단 (합영)	라선경제 협조회사	제약공장 설립 및 병원운영 (나진·선봉)	240만달러	1998. 4. 8 (1998. 6. 5)
※ 스포츠 아트	조선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	북한의 역사유물 및 풍물기행 관련 방송영상물 제작(평양, 백두산, 금강산, 묘향산 등)	60만달러	1998. 4. 29 (1998. 4.29)
※한국사진학회	조선사진가동맹 중앙위원회	남북사진작품전(서울,평양) 및 사진 집 출판(2,000부)	1억8천만원	1998. 4.29 (1998. 4.29)
※한민족문화 네트워크연구소(합영)	금강산국제그룹 (회장:박경운)	남북 문화정보화사업	3억5천만원	1998. 5. 11 (1998. 6.20)
우인방커뮤니케이션	조선해외동포원 호위원회	북한 명산·역사적 명승지 탐방관 련 다큐멘터리 및 방송광고 제작	미 정	1998. 8. 6
※우인방커뮤니케이션/한국자동차경주협회	조선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	통일염원 금강산 국제แรלי	100만달러	1999. 2. 9 (1999.11.11)

사업자	사업상대자	사 업 내 용(지역)	금 액	사업자승인일 (사업승인일)
※(주)CNA 코리아	조선아시아태평 양평화위원회	1999 평화를 위한 국제음악회 평 양·서울공연	100만달러	1999. 3.25 (1999. 4.16)
MBC 프로덕션	조선아세아태평 양평화위원회	CD 남북공동 제작, 뮤직비디오 제작 등	68만달러	1999. 5. 12
국립공원 관리공단	산림과학원 (국토환경보호성 산하)	남북간 국립공원 교류협력사업 증 진사업	미 정	1999. 7. 21
※ SN 21 엔터프라이즈	조선아세아태평 양평화위원회	민족통일음악회 방북공연	60만달러	1999. 8. 5 (1999. 8. 5)
※(주)현대 이산·현대건설 (2000.3.8) 현대자동차등 13개사(추가) (2000.7.4)	조선아세아태평 양평화위원회	실내종합체육관 건설 및 남북 체육 교류사업	3,420달러 (남북한총투자 액 :5,750만달러)	1999. 9. 2 (1999.9.20→ 2000. 3. 8 변경승인, 2000. 7. 4 변경승인)
※(주)계명 프로덕션	조선예술 교류협회	평양교예단 한국방문 공연	50만달러	1999. 9. 22 (1999. 9.22)
※(주)네오비전	조선백호7 무역회사	다큐멘터리 공동제작	50만달러	2000. 2. 3 (2000. 2. 3)
평화의 숲	조선아세아태평양 평화위원회	산림조성 및 보호를 위한 종자· 묘목·장비 지원	4억원	2000.4.12
기 독 교 대 한 감리회 서부연회	조선기독교도 연맹	평양신학원 재개원 및 운영 지원	60만달러	2000.5.20 (2001. 1.12)
※ NS21	조선아세아태평양 평화위원회	평양교예단 서울공연	550만불	2000. 5.23 (2000. 5.23)
※ 한민족문화 네트워크연 구소(단독)	조선아세아태평양 평화위원회	북한 문화자료 정보화사업	50만불	2000. 7.14 (2000. 7.14)
※ (주)시스젠	범태평양조선민족 경제개발촉진협회	「조선인포뱅크」의 경제·산 업정보에 대한 국내 미리싸이 트 개설 운영	60만불	2000. 9. 1 (2000. 9. 1)
NS21	조선아세아태평양 평화위원회	남북합작영화 「아리랑」 제작	100만달러	2000. 10.14
(주) 야미	범태평양조선민족 경제개발촉진협회	남북공동애니메이션 제작	미정	2000. 11.29
※한국문화재단	금강산가극단	금강산 가극단 한국 방문 공연	1천만엔	2000. 11.29 (2000.11.29)

사업자	사업상대자	사 업 내 용(지역)	금 액	사업자승인일 (사업승인일)
※(사)춘양문화선양회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춘향전」 남북합동공연	60만불	2001. 1.12 (2001. 1.12)
※(주)하나로통신	삼천리총회사	3D 단편 애니메이션 남북공동제작	19만불	2001. 3.23 (2001. 3.23)
※(사)동북아 교육문화협력 재단	교육성	평양정보과학기술대학 건립운영	400억원	2001. 6. 5 (2001. 6. 5)
※남북교육문 화교류연구소 (동해대학교)	조선기자동맹 중앙위원회	남북공동사진전 「백두에서 한라까지」	9만불	2001. 6. 7 (2001. 6. 7)
※우인방커뮤 니케이션	조선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	통일염원 6.15금강산 랠리	100만불	2001. 7.25 (2001. 7.25)

제5절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

1.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제도 정비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1990.8.1)을 비롯한 관련 법령을 제정하여 남북교류협력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이래, 남북교류협력 추진여건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이를 정비해 왔다. 남북관계 상황변화에 맞도록 법령의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법령 적용과정에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고시·훈령 등 하위법령도 갖추어 왔다.

1998년에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과 「남북경제협력사업 처리에관한규정」 등 5개의 관련고시를 개정하고 교류협력 관련 규제의 70%를 정비(총 규제 40건 중 14건 폐지, 15건 개선)하여 민간기업·단체 등이 쉽고 편리하게 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1999년에는 「남북경제교류협력에대한남북협력기금지원지침」을 제정하여 남북협력기금에서 민간기업 등에 경제협력사업 및 교역자금을 대출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였다.

또한 「남북경제협력사업처리에관한규정」, 「남북교역대상물품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 「남북왕래자의휴대금지품및처리방법」을 개정하여 남북경제협력사업승인 신청서류 중 환경관리계획을 추가하고, 승인대상품목을 조정하였으며, 외국인 왕래자의 휴대품 처리절차를 정비하는 등 남북교류협력 환경 변화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다.

2000년에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경험과 관련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SOC 확충지원 등으로 남북경협이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기업의 경험 자금 수요도 증대됨에 따라 2000년 11월 대출비율, 대출조건 등 지원 활성화를 위해 「남북경제교류협력에대한남북협력기금지원지침」을 개정하였다.

2001년에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하여 남북교류협력절차를 간소화하고 그간의 법 운용과정에서 제기되어 온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였다.

우선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개정(2001.10.31 공포)은 남북교류협력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교류협력 추진절차를 간소화하고, 그간의 법제운용과정에서 미비점으로 지적되어 온 부분을 중심으로 법적 근거를 보완한다는 취지에서 이루어졌다.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남북한 왕래

- 현행 “1년 6개월 이내의 방문기간”을 “3년 이내의 방문유효기간”으로 연장
 - 유효기간은 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이산가족 교류를 위한 방북시 서류 제출을 간소화
 - 「남북 이산가족찾기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신원진술서에 갈음
- 수시방북절차 간소화
 - 수시방북증명서의 경우에도 매 귀환시마다 증명서를 반납하던 것을 유효기간 만료 후 7일 이내에 반납하도록 하여 수시방북자가 귀환·방북시마다 증명서를 반납·재수령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
 - 현재 「남북경제협력사업처리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수시방북절차를 시행령에 규정하여 사회문화·인도지원 분야에도 동일하게 적용
- 법제25조(협조요청)를 포괄적 근거로 삼아 징구하던 접촉·방북결과보고서의 제출 근거 및 절차를 시행령에 명시

북한주민접촉

- 북한주민접촉은 3년의 범위내에서 유효기간을 정하여 승인
 - 유효기간(3년이내)을 정하여 기간내에는 횟수의 제한없이 북한주민을 접촉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승인하고 있는 현재의 운용방식에 대한 근거를 마련
 - 이산가족 교류를 위한 접촉은 승인유효기간을 5년으로 규정

협력사업 제출서류 간소화

- “북한당국의 확인서”를 “북한의 권한있는 기관이 발급한 확인서”까지 확대
 - 조선아세아태평양위원회 등이 발급한 확인서를 구비할 경우에도 구비서류를 갖춘 것으로 보고, 이러한 기관을 상대방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따로 당국의 확인서를 징구하지 않도록 간소화

아울러 정부는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남북교류협력법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바, 이를 통해 법률·시행령과의 체계를 완비하고, 투명성 있는 절차와 운영을 통해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는 별도로 하위 법령체계를 이루고 있는 고시·훈령·지침 등을 개정하여 대북사업의 추진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2001년 12월에는 남북협력기금 관련 2개 지침과 남북간 선박운행 및 교역과 관련한 2개 고시를 제·개정하였다.

「남북경제교류협력에대한남북협력기금지원지침」은 시중금리의 하향 추세, 남북경협의 불확실성, 경협기업에 대한 정책지원자금으로서의 성격 등을 고려, 대출이자율을 인하하고 대출비율을 상향조정하는 등 민간기업의 사업추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개정하였다.

「남북사회문화협력에대한남북협력기금지원지침」은 남북간 사회문화 협력사업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협력기금지원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금 지원대상의 선정기준, 지원금액 및 절차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제정하였다.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 개정은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컴퓨터를 반출승인품목에 신설하면서 종전에는 '도서'로만 규정되어 있던 것을 전자우편, 전자출판물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명확화 하였고, 국내외 농수산업 환경변화에 따른 농수산물 반입 제한품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남북한간선박운행승인기준에관한고시」 제정을 통해 남북한 간 선박의 안정적 운항을 도모하고, 국적선사간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선박운행 승인기준을 제시하였다.

< 2001년 지침 및 고시 제·개정 주요 내용 >

< 「경제교류협력 기금지원지침」 개정내용 >

고정금리(연6%) ⇒ 변동금리(국고채 3년물 유통수익률과 연동)

- 정책자금금리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국고채 3년물 유통수익률을 대출금리로 설정, 금리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기금의 정책적 목적 달성에 기여소요자금의 60% ⇒ 소요자금의 70%(“우선지원대상”은 소요자금의 80%)로 대출비율 상향조정
- 대북 경험기업의 자금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일반 수출입거래에 대한 금융지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대출비율을 조정, 특히 “우선지원대상”에 해당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우대조치 부여 반출자금 상환기간을 제품 반입후 3개월 ⇒ 6개월로 연장
- 물품을 반출하고 대응물자로 상환받거나 위탁가공용 원부자재를 반출한 후 위탁가공품을 반입하는 경우, 해당물품을 판매하여 현금 수령에 소요되는 기간을 현실적으로 반영
- * 단, 현금으로 상환되는 경우 현행과 동일하게 대금결제일로부터 10일 이내 상환

신용대출기준을 「차주별」, 「개별대출별」 신용한도 ⇒ 「차주별」 신용한도로 단일화

- 「차주별」, 「개별대출별」 신용한도의 중복적용을 완화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을 확대
- 대부분이 중소기업인 「장기신용등급 미보유 기업」의 신용한도를 「장기신용등급 보유기업」의 신용한도에 상응하게 조정하여 중소기업의 자금부담을 경감

< 「사회문화협력사업 기금지원지침」 제정내용 >

지원대상여부의 구분

- 당국간 합의사업, 정기적 또는 상호교환하여 시행하는 사업, 국제체육행사에 남북단일팀 참가, 의료·보건 등 사업, 청소년·학생대상 사업 등 “우선지원대상” 사업의 구체적 기준 제시
- 영리를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 미풍양속에 반하는 사업,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형사제재를 받은 자가 시행하는 사업 등 “지원제외대상” 사업의 구체적 기준 제시

원칙적으로 남북협력기금 지원한도는 『총사업비』의 50% 범위내로 하되, “우선지원대상” 사업의 경우 70%까지 허용

- 『총사업비』 산정에 있어 예상수익금, 접대비 등 간접비용, 기 구성된 조직의 인건비 등은 제외 자금집행 및 사용의 투명성 제고
- 자체 조달자금을 기금보다 우선 사용토록 하고, 기금은 원칙적으로 승인된 비목별로 사용토록 하며, 자금집행계획 수립과 자금출납장부 기록 및 회계증빙서류 제출 등 의무화

< 「교역대상물품 및 반출입승인절차 고시」 개정내용 >

반입승인을 요하는 품목의 조정

- 남북교역 증대 및 국내외적 환경변화에 따라 반입제한이 필요한 다음 품목에 대해서는 반입승인을 요하는 품목으로 분류(냉동계 등 수산물, 들깨 등 농산물)
- 연근해 생산량이 적은 수산물과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농산물, 시장접근 물량 증량 및 관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할당관세를 운용중인 농산물에 대해서는 반입승인을 요하는 품목에서 삭제(냉동홍어 등 수산물, 감귤 등 농산물)
- 기존의 ‘도서’ 를 ‘도서(전자우편물, 전자출판물, 모사전송물 등 포함)’ 로 개정

반출 승인을 요하는 품목의 신설

- ‘반출승인을 요하는 품목으로 컴퓨터’ 신설

< 「선박운행승인 기준 고시」 제정내용 >

부정기운행 승인기준

- 북한과의 운행합의서 등 운행이 가능함을 증빙하는 계약서는 선박운행승인신청인과 북한측의 책임 있는 기관간 체결되어야 할 것
- 급박한 운항일정 등의 사유로 북한측으로부터 계약서를 갈음하는 입항허가서를 발급받은 때에는 입항허가서에 선박운행승인신청인, 수송장비명칭이 기록되어 있어야 할 것
- 선박운행승인신청인은 최근 1년 이내에 제출서류의 허위작성, 승인조건의 위반 등으로 통일부장관으로부터 불허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선박운행승인신청인은 최근 6개월 이내에 화주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화물을 운송한 행위 등으로 통일부장관으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정기운행 승인기준

- 계약서에 관한 사항은 부정기운행과 동일
- 선박은 정기운행에 적합한 규모·구조·장비 등을 갖추 것
- 신청인은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 부정기적으로 4회 이상 선박을 운행한 자로서, 부정기운행 기간 중에 경고·승인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대리신청 승인기준

- 선박수리·선원교대·급유 등의 사유로 남북한의 특정항만을 단순경유하기 위해 운행하는 경우
- 국내 해상화물운송사업자가 운행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한편, 국회에서는 2001년 10월이후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및 남북협력기금법의 개정을 위한 의원입법이 추진되어 공청회가 개최되는 등 논의가 이루어졌다. 의원 발의 개정안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 정당 추천인사의 참여, 일정금액 이상의 기금사용시 국회동의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는 정부부처간의 협의기구이고 정당추천이 위헌 소지가 있으며, 2001년부터 기금집행에 대한 사전보고를 충실히 해 온 점 등을 고려하여 정부는 현시점에서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률을 개정할 필요성과 실익은 적다고 보고 있으나, 의원입법 추진 취지에 대해서는 향후 하위 법령의 제·개정 등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앞으로도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 추진여건의 변화, 남북간 제도화 진전사항 등을 보아가면서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관련 법제가 교류협력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해 나갈 방침이다.

2. 남북협력기금의 관리·운용

가. 남북협력기금 현황

남북협력기금은 남북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사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여 남북교류협력의 촉진과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할 목적으로 1990년 8월 1일 제정된 「남북협력기금법」을 근거로 1991년 3월 20일 최초로 정부출연이 이루어짐에 따라 공식적으로 설치되었다.

남북협력기금은 주로 정부출연금과 운용수익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기타 민간의 출연도 이루어지고 있다. 남북협력기금은 1991년에 정부출연으로 250억원을 조성한 이래 2001년 12월말까지 정부출연금 1조 1,350억원, 민간출연금 22억원, 운용수익금 2,034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7,147억원 등 총 2조 553억원이 조성되었다.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2년간(1998~1999년)은 정부재정의 어려움으로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정부출연이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2000년 들어 1,000억원이 출연되었으며, 2001년에는 남북관계의 개선으로 기금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정부출연금 규모가 대폭 확충되어 5,000억원의 정부출연이 이루어졌다.

한편, 민간출연금은 2001년까지 22억원이 출연되었으며, 특히 남북 화해협력 분위기가 고조되었던 2000년 6억원, 2001년 11억원이 경의선 철도연결을 위한 침목기증 용도 등으로 출연됨으로써 민간출연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남북협력기금은 1991년 축구·탁구 등 체육분야의 국제대회 남북단일팀 참가 사업 지원 등에 사용되어 왔으나, 북한 핵문제로 인해 남북관계가 경색되었던 1993년과 1994년에는 집행되지 않았다.

북한의 식량사정이 어려워지기 시작한 1995년 북한에 쌀 15만톤을 무상지원하기 위해 기금을 사용한 것을 시작으로 1996년부터 국제기구의 인도적 지원사업 참여에 있어서도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하였다. 이외에도 경수로사업에 대해서도 사전 용역비로 600만달러를 지원하

고, 1998년에는 초기사업비 4,474만달러를 대출하였다. 1999년에는 북한의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비료를 지원하기로 하고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비료 5만톤을 지원하는 데 남북협력기금 160억원을, 정부가 직접 비료 6.5만톤을 지원하는 데 179억원을 각각 사용하였다.

2000년에는 경수로 본공사 착공에 따른 경수로사업 대출 3,259억원, 북한의 식량난 완화를 위한 식량차관 867억원, 비료 30만톤 지원에 944억원이 집행되었고,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에 146억원, 남북교향악단 합동연주회 및 평양교예단, 평양학생소년예술단 공연지원에 23억원,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사업에 23억 등이 집행되었다.

< 남북협력기금 조성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정부출연	민간출연	운용수익	공자예수금	계
1991	25,000	-	237	-	25,237
1992	40,000	-	5,118	-	45,118
1993	40,000	3	4,778	-	44,781
1994	40,000	1	9,386	-	49,387
1995	240,000	119	14,589	-	254,708
1996	100,000	132	18,410	-	118,542
1997	50,000	288	27,873	-	78,161
1998	-	-	40,280	-	40,280
1999	-	3	23,013	149,831	172,847
2000	100,000	541	30,118	254,852	385,786
2001	500,000	1,080	29,406	310,000	840,486
계	1,135,000	2,167	203,104	714,683	2,055,335

* 공자예수금은 경수로 사업을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조달한 금액

나. 2001년도 기금 운용

2000년도와 마찬가지로 2001년의 기금집행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 보면 비료 20만톤 지원사업에 639억원, 식량차관(쌀 30만톤, 옥수수 20만톤)으로 190억원, 경의선 철도 및 도로 연결사업에 899억원, 제2차, 3차 남북이산가족 교환방문사업에 9억원, 대

북지원 민간단체 지원사업에 38억원, 이산가족 교류경비 지원사업에 4억원, 6.15금강산 민족통일 대토론회 경비지원에 3억원 등을 집행하였으며, KEDO 경수로사업 대출 2,555억원, 경협추진기업에 대해 경협자금 대출 450억원, 교역자금 대출 11억원 등 5,544억원의 남북협력기금이 집행되었다.

기금집행 내역의 추이를 보면, 「남북협력기금법」 제정 이후 정부는 1999년까지는 기금을 비료, 식량 등 정부차원의 인도적 대북지원과 경수로 건설사업 지원 등 ‘민족공동체회복지원’ 항목의 자금으로 주로 사용하여 왔으며, 일반기업과 민간지원단체에 대한 지원은 민간의 자율적 책임하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하에 제한하여 왔었다.

그러나 경제 및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이 활성화되고 이산가족 교류가 성사됨에 따라 기금지원 분야도 다양화되기 시작하였다. 2000년 이후 인도적 대북지원과 경수로 사업지원 이외에 인적왕래와 사회문화협력사업에도 기금지원이 확대되었을 뿐만아니라 남북교역 및 경제협력 추진 민간기업에 대한 대출도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민족공동체 회복지원 자금도 사용범위가 확대되어 남북이산가족 교환방문, 식량차관 제공, 비료지원, 대북지원 민간단체지원 이외에도 남북한 경의선 철도 및 국도 1호선 연결 사업에도 사용되었다.

한편, 정부는 2001년부터 남북협력기금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집행 이전에 기금의 사용내역 등을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보고하고 있다. 이는 2000년말 국회의 남북협력기금 정부출연금 의결시 부대의견에 따른 것으로, 2001년 1월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옥수수 10만톤 대북지원에 대한 보고를 시작으로 12월 제주도 감귤 등 농산물 대북지원 관련 수송비 지원에 이르기까지 총 9건, 2,776억원의 집행에 대해 국회에 사전보고를 하였다.

또한, 「남북경제교류협력에대한남북협력기금지원지침」 개정 및 「남북사회문화협력에대한남북협력기금지원지침」 제정 등을 통해, 민간기업의 대북경협사업과 단체의 남북사회문화 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기금지원에 있어서 대상과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남북협력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

('01.12.31 기준, 단위:억원)

구 분			금 액
조성 및 지출	조 성 (A)	정부출연	11,350
		민간출연	21
		공자기금예수금	7,147
		운용수익	2,031
		기타수입금	4
		계	20,553
	지 출 (B)	경상지원	5,755
		운용비용	776
		계	6,531
	순조성액(A-B)		14,022
보유 자산	투자자산	대출잔액(C)	7,280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금*	1,400
	유동자산	경수로계정*	382
		금융기관예치(여유자금)*	4,460
	보유자산액(*현보유자금)		14,022(6,242)

※ 현보유자금 6,242억원 = 조성액(A) 20,553억원 - 사용액(B+C) 14,311억원

< 2001년도 남북협력기금 경상지원 실적 >

(단위:백만원)

지 원 내 역	금 액
○ 경의선 철도연결 지원	49,995
○ 통일대교-장단간 도로건설 지원	39,855
○ 금강산 민족통일대토론회소요경비	253
○ 6.15남북공동선언기념 남북공동사진전	102
○ WFP를 통한 옥수수 10만톤 지원	22,296
○ 이산가족 교류경비 지원	358
○ 이산가족통합정보센터 운영 지원	25
○ 제2차 이산가족교환 방문단 지원	169
○ 제3차 이산가족교환 방문단 지원	646
○ 제4차 이산가족교환 방문단 지원	100
○ 대북지원 민간단체 지원	3,843
○ 대북 아동용 동내의 지원	4,594
○ 대북 농수산물지원관련 수송비 지원	2,419
○ 대북 말라리아 방역사업 지원	600
○ 대북 비료 20만톤 지원	63,863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차입이자	58,102
합 계	247,220

< 2001년도 남북협력기금 대출실적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대 출 액	비 고
○ 경수로본공사비대출	300,284	조선무역은행 9개 기업 및 관광공사
○ 대북 식량차관 대출	18,955	
○ 교역및경제협력자금 대출	46,072	
계	365,311	

3.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운영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4조 내지 제8조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장(제3조 내지 제8조)에 의거하여 남북간의 상호 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는 위원장(통일부장관)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관계부처의 차관 및 차관급 공무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지명하며, 위원장이 통일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간사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2001년 12월말 현재 위원은 재정경제부차관, 통일부차관, 외교통상부차관, 법무부차관, 산업자원부차관, 농림부차관, 문화관광부차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 기획예산처차관, 국정원 차장으로서 안전에 따라 위원이 추가로 참여할 수 있다. 협의회의 기능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협의·조정 및 기본원칙의 수립, 남북교류협력관련 허가·승인 등에 관한 중요사항 협의·조정, 교역대상품목의 범위 결정, 협력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남북교류협력의 추진을 위한 지원 등이며 특히 일정규모 이상의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치고 있으므로 남북교류협력 활성화에 따라 협의회의 결정이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2001년도에는 총 13회의 협의회를 개최(직접개최 5회, 서면개최 8회)하여 모두 29건의 안건을 처리하였다.

또한 협의회는 남북교류협력 및 대북지원 관련 규정의 개정을 심의·의결하기도 하였는 바,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남북한 교역대상물품 및 반출반입 절차에 관한 고시,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남북사회문화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등이 상정되어 의결되었다.

< 2001년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개최 현황 >

회차	일 자	안	
		의안 번호	의 안
76	2. 8	129 130 131 132 133 13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의선 철도 및 도로 연결사업 현황 및 추진계획 ○ 2001년 경의선 연결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 2000년도 남북협력기금 결산보고 ○ WFP를 통한 대북 식량지원 ○ 제3차 남북이산가족방문단 교환사업 관련 남북협력기금 지원 ○ 「인도적차원의대북지원사업처리예관한규정」 개정(안)
77	3.12	135 136 137 138 13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북 동내의 지원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 대북 농산물 지원 관련 수송비 등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 남북 전력협력 관련 추진 현황 ○ 임진강 남북공동 수해방지사업 추진 현황 및 추진계획 ○ WHO를 통한 대북방역 지원사업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78	4.18	140 1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북지원 민간단체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 운영개선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79	4.26	142	○ 대북 비료지원 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80	5.14	143	○ 대북 위탁가공기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대출 승인
81	6. 9	144 1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남포간 선박운항 차질 피해업체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대출 승인 ○ 대북 위탁가공기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대출 승인
82	6.29	146 147 14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1년도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 수정 ○ 한국관광공사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대출 승인 ○ 금강산 민족통일대토론회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승인
83	7.25	149	○ 2002년도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안)
84	8.17	150	○ 서전어패럴(주)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대출 승인
85	9.17	151	○ 대북지원 민간단체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86	10.10	152	○ 제4차 남북이산가족방문단 교환사업 관련 협력기금지원
87	12.13	153	○ 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의 농산물 대북지원 관련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88	12.20	154 155 156 15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경제교류협력에대한남북협력기금지원지침 개정(안) ○ 남북사회문화협력에대한남북협력기금지원지침 제정(안) ○ 남북한선박운행승인기준에관한고시 제정(안) ○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 개정(안)